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20세기 중국소설 <西太后演義>의  
수용과 변모

-<西太后傳>과 <(칭조녀걸)서태후전>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LIU MI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20세기 중국소설 <西太后演義>의  
수용과 변모

-<西太后傳>과 <(청조녀결)서태후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최 호 석

이 논문을 국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과

LIU MIN

LIU MI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 일



위원장 문학박사 고순희 (인)

위원 문학박사 최호석 (인)

위원 문학박사 김남석 (인)

## 목 차

I. 머리말 .....	1
II. 西太后의 소설적 형상화 .....	5
1. 역사상의 서태후 .....	5
(1) 서태후의 주요 행적 .....	6
(2) 서태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 .....	6
2. 『청사통속연의』 속 서태후의 형상 .....	10
3. <西太后演義>의 소설화 방식 .....	16
III. <西太后演義>의 수용과 변모 .....	27
1. <西太后傳>과 <(청조녀걸) 서태후전> .....	27
(1) <西太后傳> .....	27
(2) <(청조녀걸) 서태후전> .....	30
2. <西太后演義>의 수용 양상 .....	33

IV. <西太后演義> 수용의 소설사적 의의 ..... 52

V. 맺음말 ..... 56

참고 문헌 ..... 58



## I. 머리말

한국고전소설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은데, 그 작품 중에는 중국의 실존 역사 인물이 등장한다.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인물인 太任이나 太姒, 太姜 등을 통해 여성 주인공의 부덕을 강조하기도 하며, 남자 주인공의 뛰어난 영웅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관우, 이태백, 왕희지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작품 전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sup>1)</sup> 반면 중국의 실존 역사 인물의 경우 작품의 서사전개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문장풍류삼대록>의 소소매를 들 수 있다. 소동파 가문을 그린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 소소매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 작품에서 소소매는 才貌를 겸비한 여자로, 부덕과 여공을 중요시한 전통적인 대가규수의 모습과 대비되는 문식 있는 여성으로 표상된다.<sup>2)</sup>

더 나아가 중국 실존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20세기 초는 활자본 고전소설이 출간되면서 고전소설 향유층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독자의 증가에 따라 소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여성 인물의 고사를 수용하여 창작된 소설 작품도 다수 탄생하였다. 활자본 고전소설이 근대에 들어서도 당대의 문학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래의 고전소설은 포함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작품들이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작품들은 당시 독자들의 잠재된 욕망과 사회에

1) 張坤,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7.8. p1.

2) 홍현성, 「<문장풍류삼대록>에 나타난 여성 인식과 의미」, 『장서각』(21), 2009. 이밖에 남성들도 이와 유사한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임치균, 「18세기 고전 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2002 참조.

대한 대응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고전소설에서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품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중국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한 작품들 중에 <서시전>, <소달기전>, <양귀비전>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시전>은 서시에 관한 에피소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다.<sup>3)</sup> <서시전>의 기본 틀은 중국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도, 곳곳에 허구적 사건을 배치시켜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서시전>을 통하여 ‘아름다우면서도 나라를 멸망시킬 운세를 타고난 인물 서시’라고 하는 기존의 이미지를 제거하고 있다. 나아가 서시를 나라를 구하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호걸로 탈바꿈시킨다. <소달기전>의 경우는 <소달기전>은 중국 소설 <封神演義>와 그것의 한글번역본 <서주연의>를 같이 참조하여 번역하였다고 한다. <봉신연의>의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하되 의역, 축약, 생략 등의 양상을 같이 보이며, <서주연의>를 참조할 때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단어의 선택, 묘사의 부연 혹은 축약 등 약간의 변화를 가하였다. 또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용도 같이 이루어졌다. 인물 형상에 있어서, <봉신연의>의 세속화된 여와낭낭의 모습이 신성한 여신으로 변화되었으며, 작품의 주제가 여색을 경계하는 데로 옮겨갔다.<sup>4)</sup> 그리고 양귀비와 관련된 작품 <염정 양귀비>역시 중국소설 <수당연의>를 바탕으로 개작한 작품이다. <수당연의>를 개작한 <양귀비>에서 양귀비는 원전보다 더 극대화된 악녀로 형상화된다.<sup>5)</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 한국에서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

3) 張坤,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7.8. p172.

4) 앞의 논문. p76.

5) 앞의 논문. p189.

으로 한 고전소설이 적지 않다. 그 중 <소달기전>과 <왕소군새소군전> 등과 같은 작품은 원작과 翻案作에 이루어진 것에 많은데 반해 <西太后演義>는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단순한 수용의 측면에만 멈추지 않고 한국식으로 변용시켰다는 특징을 갖는다. 작품의 주인공인 중국 인물은 중국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국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식 인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서 작품 속 여성들이 중국의 역사 인물이기는 하나 한국식 서사 기법을 활용한 가공을 통해 중국 왕실 여자를 소개하는 소설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중국 역사상 실존 여성 인물 서태후를 주인공으로 한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활자본 고전소설 <西太后傳>•<(청조녀결)서태후전> 중국소설 <西太后演義(慈禧太后傳)><sup>6)</sup>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이 작품이 한국에 전해오고 출판하기까지 어떠한 수용방식을 거쳐 왔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중국소설 <西太后演義>를 번안한 활자본 소설의 이본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1922년에 광문사에 의해 발행된 <西太后傳>, 1936년에 덕흥서림에서 간행한 <(청조녀결)서태후전>, 그리고 회동서관에서 광고로 나오는 <西太后傳>이 그것이다. 회동서관에서 광고로 나온 版本을 제외한 나머지 두 版本은 각각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원작 <西太后演義>의 수용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작과 이본의 비교연구를 진행한 뒤 해당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소설 <西太后演義>의 수용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텍스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6)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 작품은 <西太后演義>와 <慈禧太后演義>의 두 가지 제목 있는데, 본문에서는 <西太后演義>로 정한다.

蔡東藩,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蔡東藩, <西太后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李圭瑢, <西太后傳>, 광문사. 1922. 디지털 한글박물관.

金東縉, <(청조녀걸)서태후전>, 덕흥서림, 193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Ⅱ. <西太后演義>의 소설적 형상화

### 1. 역사상의 서태후

#### (1) 서태후의 주요 행적

서태후(1835~1905)는 葉赫那拉氏로, 이름은 杏貞이다. 淸나라 文宗의 妃이자 穆宗의 生母이다. 穆宗, 德宗의 兩代에 걸쳐 四十餘年間이나 攝政을 행하였다. 慈禧太后라고도 한다. 동치제 즉위 후 慈安황태후와 함께 섭정하여, 恭親王을 의정왕으로 삼고, 전통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대적 기술을 채용하였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집념을 갖고 있었으며 독재적인 경향도 강하였다. 서태후는 同治帝 사후에 궁정 내의 반대를 물리치고 光緒帝를 세워 섭정을 펼쳤으며 황제의 성년 후에도 결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녀는 1988년 무술변법(변법자강 운동)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光緒帝를 유폐했다. 1900년에는 義和團을 선동하여 열강에 선전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열강의 베이징 진주, 배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났다. 이 사건 이후 保守派의 세력은 실추되었고 서태후는 光緒帝가 죽은 하루 뒤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녀의 재위 통치 기간은 청나라의 康熙帝, 乾隆帝에 버금가는데 이에 사람들은 그녀를 청나라의 '無冕女皇'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47년 통치기간 동안 중국은 太平天國운동과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 국내 정세가 위태로웠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기까지 하여 국력이 날로 쇠락하였다. 때문에 그녀의 집권 시절에 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서태후를 향한 후세의 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sup>7)</sup>

## (2) 서태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서태후는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두뇌를 이용하여 함풍황제의 총애를 산 뒤, 과감한 결단력과 간교한 계책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녀는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辛酉政變'을 일으켰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 그녀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서태후가 정변을 일으킨 후 부국강병을 슬로건으로 내건 洋務運動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데 洋務派는 일을 추진할 때마다 보수파와 청류당의 반대에 부딪힌다. 보수파와 청류당의 완강한 저항 속에서 서태후는 교묘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점진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감소시켜 나갔다. 청일전쟁 후에는 무술변법 유신운동이 일어났다.<sup>8)</sup> 주지하다시피 서태후는 일거에 무술변법 운동을 진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태후가 변법유신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으며, 완고한 서태후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費行簡의 <慈禧傳信錄>에 의하면 일찍이 변법 초기에 서태후는 광서황제에게 변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전한 바 있다.

몇몇 젊은 서생들의 옹호 속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진행하여,

---

7) 여기서 서태후에 대한 기본소개는 白玉林·曾志华·张新科的『清史解读(上册)』에 기록된 서태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白玉林·曾志华·张新科主编, 『清史解读(上册)』, 华龄出版社, 2007. p160.

8) 王钟翰著, 『王钟翰说清朝』, 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9. p133.

불과 일주일 만에 일천년간 누적된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수위는 점점 서태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마침내 정변으로 이어져 유혈 진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sup>9)</sup>

유신운동에 대한 서태후의 불만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었다. 유신파는 그녀를 타도하기 위한 반란 계획을 수립하여 그녀의 지위와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서태후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둘째는 정치세력의 위협이다. 광서황제와 유신파는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여 당시 사회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사회단체나 정치세력들을 위협하였다. 그들은 백일유신 기간에 110여건에 달하는 조서를 반포하여 관리와 백성을 혼란에 빠트렸으며, 특히 광서황제는 변법에 방해가 되는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적을 두게 되었다. 팔고문을 폐지한다는 과거제도 개혁 역시 과거를 준비하고 있던 선비들에겐 매우 당혹스러운 조치였다. 이러한 사태를 미루어 보아 사회 전복을 염려한 서태후는 긴급히 단호한 조치를 내려 정국을 안정시켰던 것이다.

무술변법은 비록 진압되었지만 개혁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계속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무술정변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한 서태후는 계속하여 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정변 이후 한동안 경직되어 있던 정치·사회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변법유신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심어 주었다.

9) 費行簡, 『慈禧傳信錄』, 崇文書局出版社. 918, p56. "在幾位年輕書生的擁護下, 大膽地進行改革, 僅用一週時間就完成了積攢了一千年的改革任務。但是他們的行動尺度逐漸超出了西太后所能接受的範圍, 最終演變為政變, 導致流血鎮壓的結果."

서태후의 개혁이 완만하게 추진되어가고 있을 때 의화단 운동이 발발하였다. 대세 판단에 어두운 보수파들은 서태후에게 의화단을 이용하여 외세를 배척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다. 그 결과 영·프 연합군의 북경 침공이 이어졌고 이에 서태후는 광서황제를 데리고 西安으로 피란 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다. 그 후 서태후는 보수파들을 처벌하고 더욱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할 결심을 하였다. 1901년 1월 29일 서태후는 서안에서 '예약변법'을 반포하였으며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각계에 자문을 구했다. 이 조치가 반포된 이후 각계의 반응은 대단했다.

그녀는 1862년 자신의 아들을 황위에 앉히고 서태후가 되어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하였다. 1881년 동태후가 죽은 이후엔 일인독재로서 정권을 농단하였다. 그러던 그녀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보내던 중 과식을 하여 이질에 걸렸다. 그녀의 죽음이 가까워 오던 시기에 10년 동안 유폐되었던 광서제는 袁世凱가 보낸 약을 먹고 38세 나이로 요절하고 마는데, 이때가 광서제 34년인 1908년 10월 21일이다. 광서제 사망 후 그 해 11월 14일 서태후는 독단적으로 광서제의 동생인 醇親王載灃의 3살 된 아들을 차기 황제로 지목했다.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宣統帝 溥儀이다. 그녀는 이로 인하여 慈禧太皇太后가 된다. 장장 47년간 중국을 좌지우지하였던 서태후는 향년 74세로 눈을 감았다. 부의를 황제에 앉히는 순간에도 그녀는 서둘러 전과 같이 건강을 회복해 수렴청정을 계속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영욕으로 점철된 인생을 마감하고 河北의 定東陵에 묻히게 되었다.

서태후가 죽은 뒤 청 왕조도 얼마 있지 않아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황제 부의가 황제로 재위에 있던 시간은 겨우 3년 3개월에 불과했다. 그리고 1911년에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켜 대총통이 되어 중화민국이 탄생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袁世凱가 총통으로 실질적으로 황제 행세를 하

고 부의가 만주국을 세우기도 하지만 곧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게 되었다.

서태후는 새로 변화하는 시대를 거부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던 보수적인 정치 풍토에 휘말려 물밀듯 밀려오는 서구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운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거처 마련을 위해 군비를 전환하여 이화원을 건립하는 등의 사치와 향락을 멈추지 않았다. 이외에도 조정의 만연한 부정부패가 백성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케 하니 청조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다. 서태후가 죽고 난 후 얼마 안 가 중국은 서구열강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만다.

그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그녀가 조신 간의 권력 평형화를 이루었고 청 조정의 절대통치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든다. 그녀가 권력을 잡은 시기는 청 조정이 중앙집권 통치를 하고 있을 때로 중국의 주권이 내·외부적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비록 서태후가 청 제국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역사적인 맥락 상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였다는 평론도 적지 않다. 또한 서태후는 鴉片戰爭 이래 구미열강의 도전에도 응하였으며 태평천국 등과 같은 민간의 반란세력을 진압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홍장, 장지동 등의 한족 출신을 중용하여 지방의 양무운동을 일으킨 것은 중국 근대화공업 발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양무운동 세력에 힘입어 조정 내부의 반역 세력을 처리하여 중국을 평온하게 하였으니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100일 유신의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근본적인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재고해 볼만은 하다.

서태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보통 그녀의 인격적인 면에서 이루어졌다. 1861년 함풍제가 피서산장에서 죽자 태후의 葉赫那拉氏와 공친왕이 연합하여 怡親王 재원, 鄭親王 단화와 함께 정변을 일으키는데, 이 궁중투쟁 중에 서태후는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 중 유능하다고 일컬어진 신하 肅順

이 고명 8대신에게서 정권을 빼앗자마자 그녀는 재원, 단화, 숙신을 처형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모두 숙청했다. 또한 친자 동치제와 광서제가 제위에 있는 내내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외에 중국의 주권수호와 관해서도 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결단력을 가지고 강화를 하거나 치욕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노련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녀는 중국의 근대화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 집권 초기에 그녀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세밀한 정치를 펼쳤으나 곧이어 사치와 향락에 빠져 圓明園을 수리하고 이화원과 万尊壽宴 등을 짓는데에 대량의 은을 사용했다. 서태후의 이런 사치스러운 행보는 당시 군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청나라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국가 쇠락을 간접적으로 불러왔다. 그녀의 사치와 향락으로 인하여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다보니 백성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케 하여 청나라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 2. <청사통속연의>속 서태후의 형상

<清史通俗演義>는 장회체 형식으로 쓴 연의소설이다. 저자는 蔡東藩으로, 그는 모두 11편의 연의소설을 썼는데 <清史通俗演義>는 그의 통속연의소설의 한 편이자 가장 먼저 완성한 것이다.<sup>10)</sup> 비록 연의의 형식이지만

10) 蔡東藩의 11편 역사연의소설 출판의 연도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7) <元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0.3) <明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0.9) <民國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1.1) <宋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2.4) <唐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2.10) <五代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3.5) <南北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4.2) <兩晉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4.11) <前漢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5.12) <後漢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26.9).

<清史通俗演義>는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총 100회로, 청나라 왕조가 썩기 시작한 후 선통제가 퇴위하고 출궁하기까지 300년 가까운 역사를 담고 있다. 작품 중 중대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 저자가 고증을 거쳐 서술하였다. 그는 <清史通俗演義>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생은 스스로 자문하고 역사적인 재능이 없어 감히 역사적 사실을 함부로 논할 수 없으나, 사적이거나 잡다해 보이는 기록은 시가에 전해져서 만족스럽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교정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집필자는 며칠 동안 집필을 하였으나 끝내 한 편도 얻지 못했다. 시사가 급변하고 군주제가 부활할 것을 어찌 알았으랴, 주안 청원의 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이는 소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가령 돌이켜보면 근대 사람이 저술한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랴 그 대자립론, 호인견중, 설본, 무경은 위너호수는 말이 많으며 근거가 없다. 감청자는 자신의 핏줄은 한족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추문이 없고, 왕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겼으며, 빌붙는 자는 그 곁에 모여 좌명의 공을 빌리려 하고, 왕에게 상을 받으려 하였으나, 기하급수적으로 군주가 민주가 되기는 어려우니 옛 제도로 되돌아가야한다. 저는 역사적 지류인 소설가이고 옛 일을 술회하는 사람과 병렬되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피승 (민간의 일화를 적은 책)을 많이 환영한다. 쉽게 알 수 있고, 한눈에 알수 있으며, 어려움과 깊은 근심이 없다. 책에서 좋은 소설을 얻었는데, 공과 위험은 좋은 역사에 영향 받지 않으며, 심장이 두근거리서 글쓰기 시작하고 성공하도록 노력한다. 천명기원부터 선통이 퇴위할 때까지는 모두 291년 동안의 사실을 그 관계가 가장 큰 것

을 택하여, 엮어서 통속 연의를 하였다. 몇 차례 검색을 거쳤고 고증을 거정 또한 오랫동안 검증하였으므로 기록 역시 반드시 진위를 구해야 한다. 제왕 전제정치와 마력과 관계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재삼 뜻을 다하여 매달아 밝은 경계로 하였다. 성서 4책, 무릇 백 회, 모두 50만~60만 언으로 역사 사고를 함부로 편집할 수 없고 이로 일반 사회의 안목을 제공하거나 국가사상의 한 도움이 될 뿐이다.<sup>11)</sup>

밑줄 친 내용을 보면 "천명기원부터 선통이 퇴위할 때까지는 모두 291년 동안의 사실을 그 관계가 가장 큰 것을 택하여, 엮어서 통속연의를 하였다. 몇 차례 검색을 거쳤고 고증을 거정 또한 오랫동안 검증하였으므로 기록 역시 반드시 진위를 구해야 한다." 라고 한 데서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역사 사실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역사적인 재능이 없다고 역사적 사실을 함부로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역사 사실에 대해 "몇 차례 검색을 거쳤고 고증을 거정 또한 오랫동안 검증하였으므로 기록 역시 반드시 진위를 구해야 한다." 고 했다. 그래서 작품은 어찌 보면 역사책의 참고가 되기도 한다. 또는 그때 역사상 군주독재의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후세인들 군주독재를 경계하라는 취지를

11) 蔡東藩,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書局出版社, 1916. p2. "鄙人自問無史才, 殊不敢妄論史事, 但觀夫私家雜錄, 流傳市肆, 竊不能無慊于心, 憬然思有以矯之, 又自愧未逮; 握槩操觚者有日, 始終不獲一編. 而孰知時事忽變, 帝制復活, 籌安請願之聲, 不絕于耳, 凡為鄙人所不及料. 顧亦安知非近人著述, 不就其大者立論, 胡人犬種, 說本不經, 衛女狐綏, 言多無據; 鑒清者但以為若翁華胄, 夙無稊聞, 南面稱尊, 非我莫屬; 而攀鱗附翼者, 且麀集其旁, 爭欲借佐命之功, 博封王之賞, 幾何不易君主為民主, 而仍返前清舊轍也. 竊謂稗官小說, 亦史之支流余裔, 得與述古者並列; 而吾國社會, 又多歡迎稗乘. 取其易知易解, 一目了然, 無艱僻淵深之慮. 書籍中得一良小說, 功殆不在良史下; 私心怦怦, 爰始屬稿而勉成之. 自天命紀元起, 至宣統退位止, 凡二百九十一年間之事實, 擇其關係最大者, 編為通俗演義. 幾經搜索, 幾經考證, 巨政固期核實, 所錄亦必求真. 至於帝王專制之魔力, 尤再三致意, 懸為炯戒. 成書四冊, 凡百回, 都五六十万言, 非敢妄擬史成, 以之供普通社會之眼光, 或亦國家思想之一助云爾."

게시했다.

청나라의 261년의 역사 중에 서태후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정치 독재하는 대표적 인물의 하나이다. 그래서 <清史通俗演義>이후 蔡東藩은 <西太后演義>를 지었다. <西太后演義>를 다 쓴 후에 蔡東藩은 다시 <元史通俗演義>·<明史通俗演義>·<民國通俗演義>·<宋史通俗演義>·<唐史通俗演義>·<五代史通俗演義>·<南北史通俗演義>·<兩晉通俗演義>·<前漢通俗演義>·<后漢通俗演義>의 왕조통속 연의를 계속 창작하였다.

중국 고대의 역사 서술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관변과 주류 의식을 대표하는 정사, 사대부가 개인의 견문에 근거한 야사 잡전, 그리고 민간 예술인의 강사와 역사 연의가 있다. 蔡東藩의 작품은 많은 평론을 넣고 서술과 평가가 결합 하는 문체 형태다. 역시 그의 작품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한다. 蔡東藩은 이런 평가를 통해 역사 서술에 풍부한 감정적 색채를 부여하고 이 역사를 좀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清史通俗演義>에서는 西太后 인물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이다. 예를 들어 청나라 역사 후기에 중요한 수렴청정의 경우 서태후가 주요 인물 중 하나였지만 집중 서술하지 않았다. 먼저 일부 인용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일이 바야흐로 벼풀어듬이 타당하였는데, 문득 어사 동원순이 갑자기 일절을 아뢰어, 양궁의 황태후들이 수렴청정하기를 청하였다. 함풍제가 임중할 때에, 이 세세로 전해진 천명을 받는 어가의 보물이 일찌기 서태후가 취해감을 입어, 숙순이 비록 총명하고 명민하였지만 이 사건은 흡사 먼저 한수를 실패했는데, 한수가 나감이 실착이 되니, 온 반상이 실패가 됨이라, 써 끝내

서태후의 짓는 바가 된 소이이다.....<sup>12)</sup>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수렴청정 중 서태후에 대한 서술의 일부다. 이 내용을 보면 서태후가 수렴청정에 대하여 사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肃顺보다 먼저 국새를 가져갔다. 그래야 자기가 순조롭게 수렴청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그냥 사건 발전의 기본 서술이며, 저자 개인의 입장이나 평가가 없고 단순하게 사건을 서술할 뿐이다.

그리고 <清史通俗演義>에서 서태후의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약간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작가 개인이 생각하는 서태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혹은 작가는 정사처럼 너무 엄숙하고 재미없는 작품이 되지 않도록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입궁 전 서태후(蘭儿)에 대한 묘사에서 저자는 이 인물을 매혹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란아는 자기를 꾸미하는 것을 좋아하오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교태를 부린다. 예쁜 눈썹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호미는 군주를 잘 매혹 시킨다. 討武曩檄<sup>13)</sup>으로 말한다면 이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sup>14)</sup>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서태후와 무씨(武氏-武則天)를 비견하고 그

12) 蔡東藩,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第70回. “这事方布置妥帖, 忽御史董元醇, 遽上一折, 请两宫皇太后垂帘训政。-주략-咸丰帝临终时, 这世传受命的御宝, 早被西太后取去, 肃顺虽是聪敏, 这件事恰先输了一着。一着走错, 满盘是输, 所以终为西太后所制。”

13) 중국 여황제 무측천을 탄핵한 고사.

14) 蔡東藩,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第63回. “兰儿素好修饰, 到此越装得秀媚。娥眉不肯让人, 狐媚偏能惑主。用讨武曩檄中语, 已寓深意。”

녀를 궁중을 문란하게 하고 군주를 미혹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간주했다.

재원 등의 예정된 밀계는 고북구에 가서 서태후를 암살하려고 하였는데, 이 서태후가 매우 기민하여 시위 영록에게 밀령을 내려 군사를 인솔하여 길을 따라 보호하였다. 나라후는 확실히 재원이 있는 사람이다. 영록은 서태후의 친척으로, 서태후가 어릴 때 약혼을 했다가 궁중에 뿔뿔히 떨어져서 때문에 파혼했다는 설이 있는데, 보아하니 이 말은 헛소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영록은 평생 서태후에게 충실하였는데 서태후는 이 사람의 보위를 받아 재원과 단화를 어찌나 영리했는지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다.<sup>15)</sup>

인용문을 보면, 서태후는 재원들의 계략을 슬기롭게 알아차리고, 자신에 대한 영록의 특별한 감정과 충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다. 저자는 민간전설을 활용하여 서태후의 음흉하고 간교한 이미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서태후의 음흉하고 간교한 모습도 작가의 개인적 판단으로 묘사한 것이다. 사실 중국의 정사에서 서태후와 영록의 이 관계는 확정적인 고증을 받을 수 없으나, 그에 대한 민간 설화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때 많은 작가들이 소설에 이 같은 민간 전설을 대거 활용했고 현재의 영화와 드라마 창작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도 작가는 예외 없이 이 민간 전설들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였다. 비록 역사에 있는 일이지만 세간에 떠도는 서태후와 영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자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하지만 <清史通俗演義>에서는 서태후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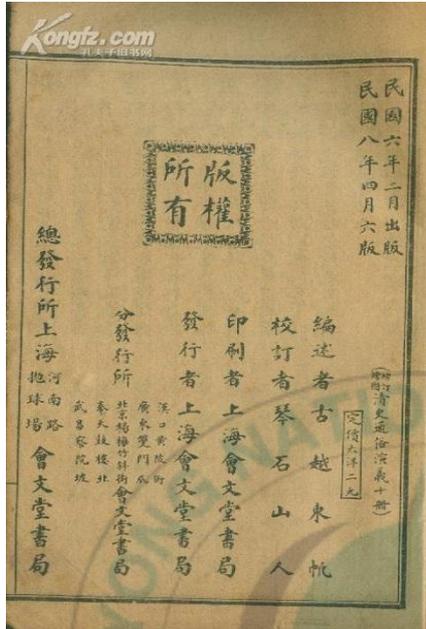
15) 蔡東藩, <清史通俗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第70回. "載垣等預定的密計, 擬至古北口下手, 偏這西太后機警得很, 密令侍衛榮祿, 帶兵一隊, 沿途保護. 那拉后才具確是不小. 榮祿系西太后親戚, 有人說西太后幼時, 曾與榮祿訂婚, 後因選入宮中, 遂罷婚約, 這話未免虛誕. 但榮祿生平, 忠事西太后, 西太后得此人保駕, 慫你載垣、端華, 如何乖巧, 竟不敢下手."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서술이 많지 않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이 작품 속 서태후의 형상을 분석한다. <淸史通俗演義>에서 서태후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고 간략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淸史通俗演義>를 쓴 뒤 서태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시 <서태후연의>라는 작품을 쓴 것이다.

### 3. <西太后演義>의 소설화 방식

<西太后演義>는 1916년에 출판되었고 저자는 蔡東藩(1877~1945년)이며, 中國 民國시대 유명한 역사 연의소설이다. 앞서 언급한 <淸史通俗演義>와 마찬가지로 장회체의 소설이기도 하다. 총 40회 12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그림1>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1> <西太后演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9.)

<그림1>은 중국 원본 <西太后演義>의 1면과 판권지이다. <그림2>은 <西太后演義>의 1면이다. 판권지의 우상단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발행년도가 '民國六年(1917)二月出版' '民國八年(1919)四月六版' 이다. 즉 <그림1>에 제시한 <西太后演義>는 1919년에 발행된 6판으로, 그것의 초판은 1917년에 발행되었다. 발행소는 '上海會文堂書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실제 발행된 것은 1916년으로, <그림1>에 제시한 1917년은 재판본의 발행년도이다. 1916년 발행 판본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본고에서는 1917년의 표지를 가져왔다. 일단 서문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청나라의 한 시대의 여 황후는, 앞에는 효장<sup>16)</sup>이 있었고, 뒤에

는 효흠<sup>17)</sup>이 있었으니, 다 재주와 미색으로써 알려졌는데 효흠이 더욱 그에 초과하였다. 돌아보건대, 효장은 능히 홍승주를 투항시켰고, 다아곤을 잘 부렸기 에, 마침내 8세의 어린군주로 하여금 중원에 들어와 군주 할 수 있게 끔하여 천하통일의 성대한 다스림을 열었다. 효흠은 처음에는 발언을 평정하고, 회묘를 평정하고, 인재를 알아 잘 임용하여 거의 효장을 능가함과 같았으나, 이에 그 후에 참소하여 엽음을 그릇되게 믿고 간사한 사람을 망령되이 임용하여, 슬프게도 수천 년간에 있지 않았던 악한 재앙을 이루어, 청나라 왕실이 썩 공터가 되었으니 이는 무엇인가? 부인은 작은 앞에는 가하나 큰 받음에는 불가하고, 잠깐 시험함은 가하나 항상 오로지함에는 불가함이니, 효장도 비록 또한 정사에 관여하였으나 끝내 대권을 잡아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험한 바가 효과가 있었고, 효흠은 세 차례나 조정에 임하여 위세와 권력이 비할바 없었으니, 부지런함에 말미암아 안일해지고, 안일해짐에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교만해짐에 말미암아 실패하였으니, 그렇다면 심하도다! 암탁은 새벽에 움이 없다는 교훈이여, 진실로 가히 어길수 있겠는가! 청나라의 말엽에 당파 사람들이 붕기하여, 보황당은 앞에서 글로서 토벌하고, 혁명당은 뒤에서 말로서 주륙하니, 효흠의 명망이 그로인하여 크게 손상되었는데, 동네사이에 일찌기 <서태후> 한편이 있어, 책질이 몇 권이 없었고, 궁궐의 더러운 사적을 말하였는데, 속임에 가까워 잔터럭 만큼도 가치가 없었기에, 고로 아침이 끝나지 않고도 훼손되었다.

16) 효장황후 송씨(孝章皇后 宋氏, 952년 ~ 995년)는 북송을 건국한 太祖 趙匡胤의 황후이다. 『송사(宋史)』 권242 열전 제2 후비下 효장송황후(孝章宋皇后)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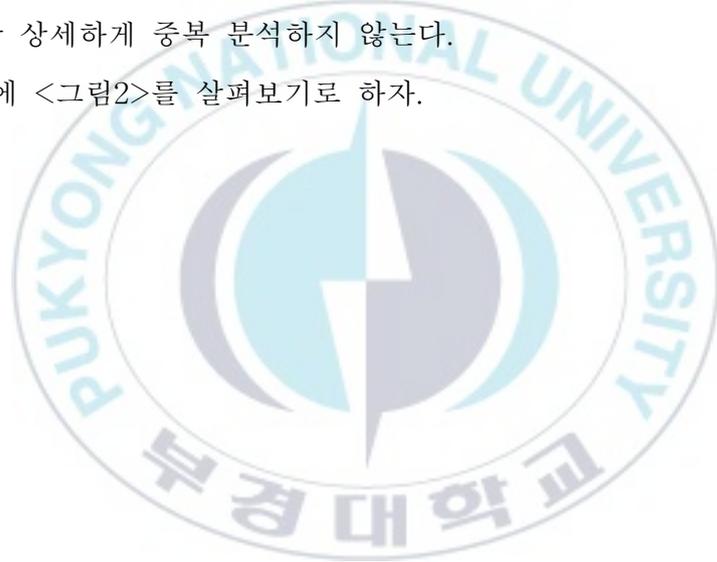
17) 서태후, 자희태후라고도 불린다. <https://www.baidu.com/>.

청나라 왕실이 이미 전복되고, 다시 <자희외기>와 <자희사조기>에 미치기까지 등의 책들이 저잣거리에 유행하여 전해졌는데, 돌아보건대, 혹은 서양글을 팔아서 반드시 다 확실하지는 아니하고, 혹은 야사를 주워 모아 소견이 많이 치우쳤는데, 일편방면의 견문에 근거하여 방자하게 써 논하여 정함을 가하고자 한다면, 관려의 꾸짖는 자가 있음이 없기를 보장하겠는가. 비루한 사람이 전에 <청사통속연의>를 편집하였는데, 효흠의 일생행적에 있어 열에 네다섯은 들었기에, 스스로 거칠게나마 대체를 얻었다고 이르렀는데, 이에 시론이 오히려 미진하다는 서운해 함이 있어서, 특별히 서태후전집을 이어서 엮으니, 거듭 연의의 체제를 쓰고, 큰 정사를 모아 적고, 두루 남아있는 들음을 채집하여, 책 사십회를 얻었으니, 모두 이십여 만자 이다. 요지는 여자의 권력을 방지하고, 세상의 꿈을 불러깨워,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 곧 권면하고 곧 징계함에 있으니, 열독하는 자들이 이 책을 얻어서 그것을 증험해본다면, 그 혹 죽히 써 눈을 배불릴진저! 편집이 끝나고 몇 마디의 말을 적어서 머리말을 짓는다.18)

18)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p1. "有清一代之女后, 前有孝庄, 后有孝钦, 皆以才色闻, 而孝钦尤过之. 顾孝庄能招降洪承畴, 善驭多尔袞, 卒令八龄幼主入主中原, 开一统之盛治. 孝钦则初平发捻, 定回苗, 知人善任, 几若凌驾孝庄. 乃其后误信谗构, 妄任愎人, 酿成数千年来未有之匪祸, 而清室以墟. 是何也? 妇人可小知, 不可大受; 可暂试, 不可常专. 孝庄虽亦预政, 卒未秉揽大权, 故所试有效. 孝钦三次临朝, 威权莫比, 由勤而逸, 由逸骄, 由骄而败, 则甚矣! 牝鸡母晨之训, 固不可违也! 晚清之季, 党人蜂起, 保皇党笔伐于先, 革命党口诛于后, 孝钦之名为之大损, 坊间曾有《西太后》一编, 卷帙无几, 第述宫闱秽亵事迹, 近诬蔑毫无价值, 故不崇朝而毁灭. 清室已覆, 复有《慈禧外纪》及《慈禧写照记》等书流传市肆, 顾或稗贩西文, 未必尽确, 或掇拾野乘, 所见多偏, 据片面之见闻, 漫欲加以论定, 保无有管蠡之诮者. 鄙人前辑《清史通俗演义》, 于孝钦一生行迹, 十举四五, 自谓粗得大凡, 乃时论犹有未尽之憾. 用特续编西太后专集, 仍用演义体裁, 哀录大政, 遍采遗闻, 得书四十回, 都二十余万言. 要旨在防范女权, 唤醒世梦, 以人为鉴, 即劝即惩, 阅者得是编以证之, 其或足以覆日也欤! 编竟志数语, 以作弁言."

서술한 바에 따르면 작가는 서문에서 서태후를 효장황후와 비교하여 서태후의 공헌과 그의 주요 과실을 지적하였다. 서태후가 세 번의 수렴청정을 통해 국가 대권을 독차지해 결국 청나라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이 서문은 작품 속 서태후라는 인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으로,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지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작가는 서태후의 인물 형상을 정하였다. 그리고 <西太后演義>의 소설화 방식을 언급하면서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주요 목적도 밝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중복 분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림2>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2><西太后演義>(上海會文堂出版社, 1919.)

<그림2>를 보면 1면의 우상단에 작품 제목과 제1회의 제목이 있다. 그리고 1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장회체의 형식을 따른다. 이 작품은 서문을 제외하고 모두 40회로 이루어졌는데, 40회의 회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목	
제1회	전대왕조를 서술하고 도입부를 펴서 이야기하고, 황후의 가족으로 거슬러올라가 어린시절을 차례대로 서술하다(述勝朝暢談楔子, 溯後族順敘髫年)
제2회	부친상에 분주하였는데 부의금을 얻을 뜻이 없었고, 환선궁에서 인연이 있어 고운 짝을 만나다(奔父喪無意得賻儀, 幻仙宮有緣逢艷侶)
제3회	황제의 말씀을 전하여 선포하고 기준에 따라 우수한 자를 가리니, 구름길이 자취를 발하여 성지에 응하여 궁궐에 들어가다(天語傳宣循章選秀, 雲程發跡應旨入宮)
제4회	열궁들이 돌보고 황후에게 직접 이바지하니, 황제의 얼굴을 가까이하고 황제의 은택을 우러러 받들다(列宮眷供直坤闈, 近天顏仰承帝澤)
제5회	사랑과 은혜에 목욕하고 귀인으로 자리에 올라, 황제의 침소를 모시고 황자를 잉태하다(沐慈恩貴人升位, 侍禦寢皇子懷胎)
제6회	함풍제가 아름다운 아기를 낳음을 기뻐하고, 증시랑이 홀로 혜감을 초대하다(鹹豐帝喜產佳兒, 曾侍郎獨邀慧鑒)
제7회	비어있던 법전을 맞이하여 귀비가 돌아가 부모를 살피고, 나라 외교에 참여하니 현명한 부인이 도모함을 잃다(邀曠典貴妃歸省, 預邦交哲婦失謀)
제8회	내밀한 말을 써서 엄한 성지가 비단을 내리고, 바깥의 피칠함을 열어서 지극한 돌봄이 먼지를 입다(用內言嚴旨賜帛, 開外覺摯眷蒙塵)
제9회	참혹히 불놓음을 만나 대궐 동산이 불담을 입으니, 궁궐로 돌아오며 희망이 끊기고 열하에서 부고를 전하다(慘遭縱火澗園被焚, 望斷回鑾熱河馳訃)
제10회	밀모를 정하고 길을 열어서 행차를 돌리고, 보좌하는 신하를 주륙하고 수렴청정을 창제하다(定密謀啟程返蹕, 戮輔臣創制垂簾訃)
제11회	월의 우두머리를 평정하였으니 특별히 풍성한 상을 반포하고, 친왕을 견책하고 은밀히 조정의 강령을 칙서하다(平粵酋特頒懋賞, 譴親王隱飭朝綱)
제12회	밀지를 받들고 권력 있는 환관이 수도를 나가니, 악한 소문에 놀래서 어머니가 피칠함을 시작하다(奉密旨權闈出都, 驚耗問慈闈肇釁)
제13회	황후를 책립하여 큰 혼인을 예식을 이루고, 친히 정치함을 조직하여 깨우치고 모후가 수렴을 거두다(冊立中宮大婚成禮, 詔諭親政母後撤簾)

제14회	동치제가 은밀히 나가서 방종하게 즐겼으나, 원명원 공사를 일으킴을 간하여 막다(同治帝微行縱樂，圓明園諫阻興工)
제15회	창독에 감염되어 목종이 빈천하여, 밥을 끊고 의후가 순절하다(染瘡毒穆宗賓天，絕粒食穀后殉節)
제16회	유언의 상소를 올려 통절히 계통을 늘어놓았고, 러시아조약을 고치는데 다행히 사신의 인재를 얻다(上遺疏痛陳繼統，改俄約幸得使才)
제17회	동태후가 계략에 걸려 하혈을 앓고, 공친왕은 참소를 만나 직무를 떠나다(東太后中計暴崩，恭親王遭讒去職)
제18회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봉작된 장수가 화의론을 주장하고, 순왕총감을 따라 병사훈련을 열병하다(奉慈命爵帥主和議，隨醇王總監閱兵操)
제19회	원명원에 행차하여 권력있는 환관에게 아름답다는 유지(칭찬)를 하였으며, 견주어 정권을 돌려주고 지목하여 외척과 결혼하게 하였다(幸名園嘉諭權閹，擬歸政指婚懿戚)
제20회	신기영이 동산에 다다라 교열을 제공하였고, 기년전이 실수로 인한 불로 기이한 재앙을 빚었다(神機營赴園供校閱，祈年殿失火釀奇災)
제21회	어머니의 복을 빌고 먼저 성대한 의전을 갖추었고, 패전보를 듣고는 성지를 내려 융성한 예의를 파하였다(祝慈嘏先期備盛典，聞敗報降旨罷隆儀)
제22회	자매화들이 참소를 만나 귀양감을 입었고, 골경신이 변경을 채우기를 강하게 간언하였다(姊妹花遭讒被謫，骨鯁臣強諫充邊)
제23회	일본과 화의할 것을 명하며 고충을 펴보였고, 러시아와 연합할것을 주장하고 파견하여 밀약을 맺었다(命和日宣示苦衷，主聯俄遣訂密約)
제24회	강주사 련이 변법을 상소하여 청하였으니, 광서제가 백일 동안 유신을 재촉하였다(康主事連疏請變法，光緒帝百日促維新)
제25회	비밀모의가 새어나가니 세번째로 조정에 임하여, 구식정치로 돌이키고 여섯 사람을 목숨을 죽였다(泄秘謀三次臨朝，反舊政六人斃命)
제26회	황태자가 종묘에 후사로 들어왔고, 의화단이 도읍땅 곁으로 뻗치었다(大阿哥入嗣宗祧，義和團旁延畿輔)
제27회	권비(의화단)을 편들고 그릇되이 사악한 술법을 믿었으며, 전쟁의 유지를 반포하여 우방들에게 죄를 열었다(袒拳匪誤信邪術，頒戰諭開罪友邦)
제28회	특별조약을 맺어 감독들로 하여금 백성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주제군이 텐진에서 지킴을 잃었다(訂特約江督保民，走制軍津門失守)

제29회	승냥이와 호랑이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하여 연경의 시장은 피를 흘렸고, 원앙이 날개가 꺾이니 궁궐의 우물은 혼령을 묻었다(豺虎擅權燕市流血, 鴛鴦折翼宮井埋魂)
제30회	수도를 잃고 어머니의 수레로 달아났으니, 화친의 의론을 열고 죄지은 수괴들을 징계하고 다스렸다(失京師出奔慈駕, 開和議懲治罪魁)
제31회	북경을 정하고 전권에 조목을 의논하고, 서안에 붙어살다가 궁궐로 돌아가길 조칙내렸다(定北京全權議款, 寓西安下詔回鑾)
제32회	황태자가 피폐해져서 태후 일행 가마에 타고 수도로 들어왔고, 새로운 정치를 거듭 행하니 조정에 임하여 조칙을 선포하였다(儲君被廢安輦入京, 新政重行臨朝布敕)
제33회	전권을 돌로하여 러시아와 더불어 조약을 맺고, 두 지혜로운 딸은 어머니를 따라 궁궐로 들어왔다(兩全權與俄訂約, 二慧女隨母入宮)
제34회	연극의 미혹에 중독되어 노래를 상세히 연구하였고, 새로운 학문을 강론하고 겸하여 정치법을 진술하였다(中戲迷詳究聲歌, 講新學兼陳政法)
제35회	발부인이 입조하여 뵈자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영중당에서 세상을 버릴때의 유언을 하였다(勃夫人入觀開盛宴, 榮中堂棄世上遺言)
제36회	만생원에 태후가 임하여 행차하고, 해안당에서 서양여자가 사진을 찍었다 초상화를 그리다. (萬生園太後臨幸, 海晏堂西女寫真)
제37회	전쟁구역을 그린 가운데에 법규조목들을 세워 선포하였고, 대관을 물리치고 서쪽을 순시하며 망령된 말을 피하였다(劃戰域中立布條規, 斥臺官西巡辟妄語)
제38회	천수가 때에 이르자 힘써 휘호를 사양하였고, 다섯 신하가 귀국하여 특별히 윤음을 내리었다(萬壽屆期力辭徽號, 五臣歸國特降綸音)
제39회	노래하는 계집을 들이니 언론의 길이 풍조를 일으켰고, 당파 사람들의 정부가 헌법을 반포함을 막았다(納歌姬言路起風潮, 防黨人政府頒憲法)
제40회	용의 수염을 바랬지만 영대에 한을 남기고, 란새를 부림으로 돌아가니 흥진의 꿈이 끝을 고하네(望龍鬚瀛臺留恨, 回鸞馭塵夢告終)

<표1>

<西太后演義>의 저자는 봉건 왕조 몰락 단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서태후의 부패하고 추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이 강경한 여인의 다면적인 인생을 평이한 언어로 보여 준다. 그리고 자애로운 일생을 위주로 해 晚淸을 훑어냄과 동시에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독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중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그래서 <西太后演義>는 가독성이 좋으며 史學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연의로 여겨진다. 작품의 1회에서 작가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에 <자희외기>와 <자희사조기>에 미치기까지 등의 책들이 저잣거리에 유행하여 전해졌는데, 돌아보건대, 혹은 서양글을 팔아서 반드시 다 확실하지는 아니하고, 혹은 야사를 주워모아 소견이 많이 치우쳤는데, 일편방면의 견문에 근거하여 방자하게 써 논하여 정함을 가하고자 한다면, 관려의 꾸짖는 자가 있음이 없기를 보장하겠는가. 비루한 사람이 전에 <淸史通俗演義>를 편집하였는데, 호흞(서태후)의 일생행적에 있어 열에 네다섯은 들었기에, 스스로 거칠게나마 대체를 얻었다고 이르렀는데, 이에 시론이 오히려 미진하다는 서운해함이 있어서, 특별히 서태후전집을 이어서 엮으니, 거듭 연의의 체제를 쓰고, 큰 정사를 모아 적고, 두루 남아있는 들음을 채집하여, 책 사십회를 얻었으니, 모두 이십여 만자이다. 요지는 여자의 권력을 방비하고, 세상의 꿈을 불러깨워,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 곧 권면하고 곧 징계함에 있으니, 열독하는 자들이 이 책을 얻어서 그것을 증험해보라.<sup>19)</sup>

인용문에 따르면 저자의 이전 작품인 <淸史通俗演義>에서 서태후라는 인물을 언급했지만 서술이 엉성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西太后演義>를

19)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1~2쪽. "當時有《慈禧外紀》及《慈禧寫照記》等書流傳市肆, 顧或稗販西文, 未必盡確, 或掇拾野乘, 所見多偏, 據片面之見聞, 漫欲加以論定, 保無有管蠡之謬者。鄙人前輯『淸史通俗演義』, 於孝欽壹生行跡, 十舉四五, 自謂粗得大凡, 乃時論猶有未盡之憾, 用特續編西太後專集, 仍用演義體裁, 哀錄大政, 遍采遺聞, 得書四十回, 都二十餘萬言。要旨在防範女權, 喚醒世夢, 以人為鑒, 即勸即懲, 閱者得是編以證之."

다시 썼다. 또 그 당시에는 태후를 주제로 쓴 소설이 많았는데, 이 소설들이 그녀의 황량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만을 다수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맞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고증되지 않은 야사와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서태후라는 인물에 대해 독자들이 부정확한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어서 연의 장르로 서태후의 일대기를 다시 쓴 것이다. 연의이긴 하지만 스토리를 사실과 적절하게 풀어내어 역사 속 서태후의 진실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서술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을 결합한 것은 재미를 더하면서도 소설전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허구적인 일부분의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썼다. 그렇기에 실제 史書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후인들이 여자의 권력 장악에 대비하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주지를 밝혔다.

작품의 대부분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 서술되어 있지만, 작가는 정사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 외에 허구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2회에서는 서태후가 젊었을 때 꾸 꾸 하나를 통해 일부분의 허구적 내용을 추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이미 외출하니, 힘써 강하게 정신을 진정시키고, 눈을 감고 고요히 자는데, 바로 몽롱하게 잠 들어가던 때에, 별안간 등 불빛이 한번 번뜩임을 보았는데, 한명의 푸른 옷의 시녀가 있어 사뿐 사뿐 들어오는데, 눈썹과 눈 사이에 은은히 향기를 머금고, 복장도 또한 대중에 비해 같지 않았으니, 구들방에 달려 접근하고는 그녀를 향하여 손짓을 하였다. 란아가 바로 꾸꾸어 물을것을 생각하는데, 그 시녀가 치우쳐 앞에 올라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키니, 흡사 부지 불 각간에 그녀를

따라서 가게 되었다. 그녀가 대청에 나아갔는데, 각각의 미녀들이 다 왼쪽에 움직이지 않고 서있음을 보니, 바람 같은 땀은 머리에 안개 같은 살쩍이라, 빼어나고 뛰어나서 범상치 아니하니, 갑자기 눈이 해매이고 마음이 꺾이어, 앞으로 견주어 향하여 무릎을 꿇고 문안을 하는데, 다만 대청의 각 미녀들이 소리를 일제히 하여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장래의 국모이니 격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하였다. (기이함의 지극함이다) 말이 끝나고, 다 란아를 향하여 악수하고 안부를 물었다. 란아는 이에 이르자, 또한 자신이 이미 존귀하고 영화로움에 반열 한것 같아서, 마침내 담을 놓아버리고 그녀들과 더불어 수작하여 대답하였다.....<sup>20)</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저자가 추가한 허구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난아는 꿈속에서 선녀를 꿈꿨는데, 이 선녀는 그가 나중에 나라의 국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난아가 선궁에서 선녀를 만나는 꿈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정사에서 간단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작가는 오히려 이것으로 과장하여 작품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하였다. 작가는 이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통해 그 뒤에 난아가 서태후가 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호응시켰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독자의 흥미를 끌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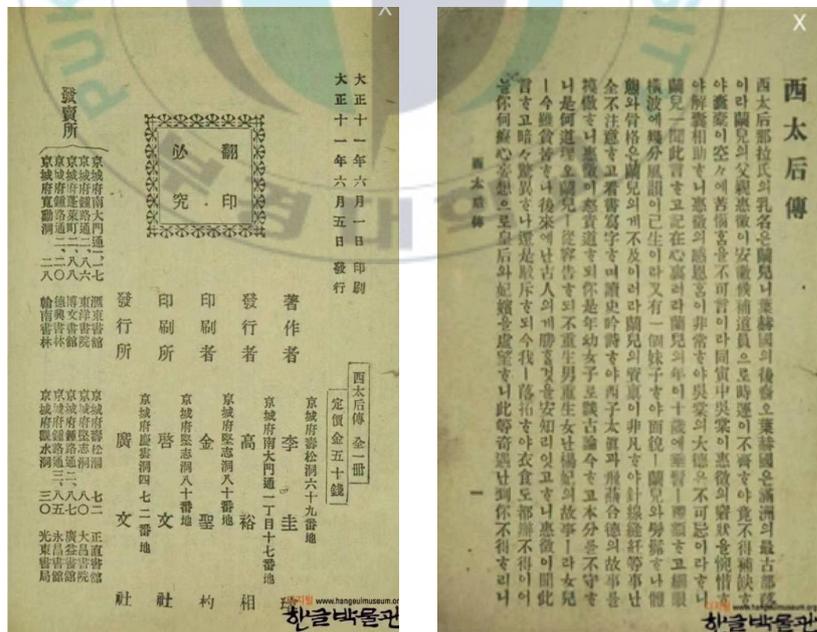
20)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15~16쪽. "未几母已出外, 勉强镇定精神, 闭目静睡。正在朦朦胧胧的睡去, 瞥见灯光一闪, 有个青衣侍儿, 冉冉而入, 眉目间隐含秀气, 装束亦比众不同, 走近炕旁, 向她招手。兰儿正思诘问, 那侍儿偏上前扶起自身, 恰不知不觉的随了她去.... 。她进了厅, 见各丽姝统站着左首, 风环雾鬓, 秀逸不群。顿时目迷心折, 拟向前屈膝请安。但听各丽姝齐声道: “不敢, 不敢, 你是将来的国母, 休要客气。” (奇极) 言毕, 统向兰儿握手问好。兰儿至此, 也好像自身已列尊荣, 竟放着胆, 与她酬答。”

### Ⅲ. <西太后演義>의 수용과 변모

#### 1. <西太后傳>과 <(청조녀걸) 서태후전>

##### (1) <西太后傳>

중국소설 <西太后演義>를 수용한 활자본 고전소설 <西太后傳>은 한문 현토본으로, 그것의 저작 겸 발행자는 李圭瑢이다. 1922년 廣文社에서 신식 연활자본(딱지본)으로 간행되었다. 서문과 회목은 없고 총 11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3>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은 廣文社에서 출판한 <西太后傳>의 1면과 관련지 부분이다.



<그림3> 한문 현토본 <西太后傳> (광문사,1922)

<그림3>의 판권지의 우상단에 '大正十一年六月五日發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른쪽 아래를 보면'發行社 廣文社'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西太后傳>은 광문사에서 1922년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행소는 광문사이다. <西太后傳>은 서문 없이 본문으로 바로 시작한다. 본문의 1면의 내용과 <西太后演義>의 대응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西太后傳>	<西太后演義>
<p>西太后那拉氏의 乳名은 蘭兒니 葉赫國의 後裔오 葉赫國은 滿洲의 部落 이라 蘭兒의 父親 惠徽이 安徽候 補道員으로 時運이 不濟ㅎ야 竟不得 補缺ㅎ야 囊橐이 空空에 苦惱ㅎ口 을 不可言이라 同寅中 吳棠이 惠徽의 窘狀을 惋惜ㅎ야 解囊相助ㅎ 니 惠徽의 感恩ㅎ口이 非常ㅎ야 吳棠의 大德은 不可忌이라ㅎ니 蘭兒 一聞此言ㅎ고 記在心裏러라 蘭兒의 年이 十歲에 垂髻-覆額ㅎ고 細眼橫波에 幾分風韻이 已生이라 又有一個妹子ㅎ야 面貌-蘭兒와 髣髴ㅎ나 體態와 骨骼은 蘭兒의 不及이러 라 蘭兒의 資稟 이 非凡ㅎ야 針線 縫紉等事난 全不注意ㅎ고 看書寫字 며 讀史吟詩ㅎ야 西子太眞과 飛燕 合德의 故事를 摸倣ㅎ니 惠徽이 怒 責道ㅎ되 你是年幼女子로 談古論今ㅎ고 本分를 不守ㅎ니 是何道理오 蘭兒-從容告ㅎ되 不重生男重生女난 楊妃의 故事라 女兒今雖貧苦ㅎ나 後 來에난 古人의에 勝ㅎ르것을 安知 리이고ㅎ니 惠徽이 聞此言ㅎ고 暗暗驚異ㅎ나 還是 駁斥ㅎ되 今我-落 拓ㅎ야 衣食도 都辦不得이어늘 你何 癡心妄想으로 皇后와 妃嬪을 虛望ㅎ 니 此等奇遇난 到你不得ㅎ리니<sup>21)</sup></p>	<p>西太后乳名蘭兒，她的父親叫作惠徵，曾爲安徽候補道員。只因時運不濟，需次了好幾年，竟不會得一好缺，弄得囊底蕭澀，妙手空空，几苦得不可言喻。亏得同寅中有个漢員，姓吳名棠，籍隸盱眙縣，与惠徵有僚旧誼。乎時見惠徵窘狀，代爲惋惜，有時或解囊相助。惠徵非常感激，每語家人道：“咱們如有日出頭，吳同寅的大德，斷斷不可忘怀。”蘭兒听了，牢記在心。蘭兒是時，不過十齡，垂髻覆額，弱眼橫波，已生就几分風韻。尚有一个妹子，面貌与蘭兒仿佛，只體態骨骼，不及蘭兒的嬌小玲瓏。蘭兒遂自覺勝人一籌，大有顧影生怜的意態。而且性情生得特別，資稟更是不凡。她于針黹縫紉等項不甚注意，平時只管看書、寫字、讀史、吟詩，把西子、太眞、飛燕、灵甄的故事，更記得非常爛熟。(少成若天性。)暇時，与乃父惠徵談論，惠徵尙被她難倒。蘭兒見乃父无言，更說得天花亂墜。惠徵听得不耐煩，常怒斥道：“你一个年輕女子，說什么上下古今。本朝旧例，只有須眉男子，好試博學鴻詞。若巾幗女流，任你如何淹博，總用不着哩！蘭兒恰從容對父道：“賤日豈殊衆，貴來方悟稀’，這不是西子的寫照么？‘生男勿喜女勿悲，生女也可壯門楣’，這不是楊妃的遺歌么？女儿現雖貧苦，安知后來不爭勝古人？”(志趣确是過人，可惜未曾醇正。)惠徵听這一席話，也覺暗暗惊异。但口中還是駁斥道：“我現在落拓得很，連衣食都辦不端正，你還痴心妄想，望做皇后妃嬪。哼哼！這等奇遇，輪你不着。你不如到廚房內去帮你母司炊烹茶，做个灶下婢便吧。<sup>22)</sup></p>

21) 이규용, <西太后傳>, 광문사, 1922.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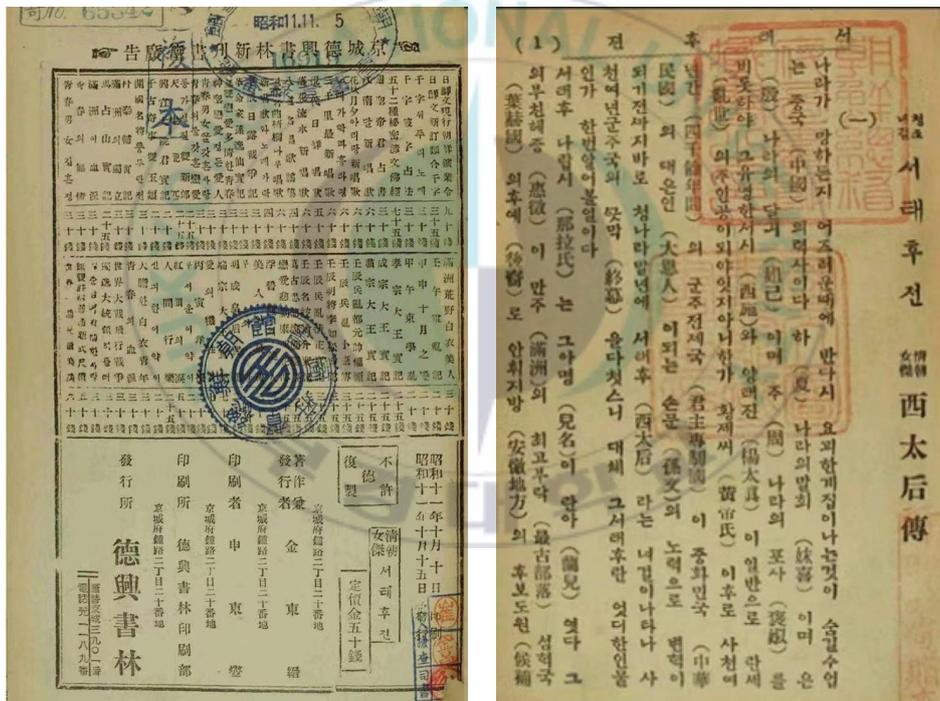
22)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제1회. p4. 서태후의 아명은 난아, 아버지의 성함은惠徵, 安徽의 行정을 監査하는 官리이다. 다만 시운이 나빠 몇 年을 기다려야 했지만,

<西太后傳>의 1면 내용과 <西太后演義>의 1회 첫 부분을 비교해 보면 둘의 내용 서로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문 원토본은 중국소설 <西太后演義>를 바탕으로 하며 이를 발췌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2) <(청조녀결)서태후전>

한글본 <(청조녀결)서태후전>의 작자 겸 발행자는 金東縉이다. 1936년에 德興書林에서 발행한다. 모두 42회 116 페이지이다. <그림4>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 거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다행히 동료 중 吳名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적은 쉬이현으로 惠徵과 정분이었다. 惠徵의 궁상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때로는 도와주기도 했다. 惠徵는 감격에 겨워 말끝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吳동료의 큰 덕을 잊지 말자.” 난아는 마음에 깊이 새겼다. 난아는 10살 밖에 안 되었는데, 머리가 이마를 덮고, 눈이 약해 이미 태생적으로 몇 가지 정취가 있다. 여동생이 있는데, 용모는 난아와 흡사하고, 자태와 골격은 미치지 못했다. 난아는 동생보다 한수위라고 생각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태도가 되었다. 심지어는 성품이 특이하여 천성이 비범했다. 그녀는 재봉, 바느질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평소에는 독서, 쓰기, 사독, 시 읊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서자, 태진, 비연, 영건의 이야기를 아주 잘 기억했다. (소성약천성.) 짬이 날 때 아버지인 惠徵와 이야기하였는데, 그녀 때문에 惠徵가 당황하기도 했다. 난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말이 없으면 더욱 허풍을 떨었다. 惠徵는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젊은 여자아이가 무슨 상 고금을 말 하느냐. 본 왕조선례에는 눈썹을 가진 대장부만이 학문을 넓혔다. 여걸인 네가 아무리 박식하게 굴어도 소용없다!” 난아는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난 할 때는 무엇이 남들과 다르겠는가.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 되어서야 미모가 제일 희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서자를 형상화 한 것 아닌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여자를 낳았다고 슬퍼하지 말라, 딸을 낳아도 집안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楊妃의 유가 아닌가. 딸이 가난해도 나중에 옛 사람을 이기지 않을 줄 아느냐” 고 반문했다. (취지는 확실히 뛰어나지만, 애석하게도 순수하지는 못하다.) 惠徵는 이 말을 듣고는 은근히 놀랐다. 그러나 반박하며 “나는 지금 굉장한 실의에 빠졌다.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너는 황후의 빈이 되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구나.” 흥흥! 그런 기이한 만남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너는 부역에 가서 네 모사에게 차나 끓여 주어 부뚜막 밑이 되어 주렴.



<그림4> 한글본 <西太后傳> (덕흥서림, 1936)

<그림4>의 판권지를 보면 한글본인 <(청조녀결)서태후전>은 덕흥서림에서 1936년(소화11년)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소설 <西太后演義>과 같이 회목을 나누고 있지만 매 회마다 소제목은 없다. 1회에는 서문

성격을 띤 내용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

1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라가 망하든지 어즈러운때에 반다시 요괴한계집이나는것이 숨길수업는 중국(中國) 의력사이다 하(夏)나라의말희(妹喜)이며 은(殷)나라의 달기(妲己)이며 주(周)나라의 포사(褒姒)를 비롯하여 그유명한 서시(西施)와 양태진(楊太眞)이 일반적으로 란세(亂世)의 주인공이되야 잇지아니한가 황제씨(黃帝氏) 이후로 사천여년간(四千餘年間)의 군주전제국(君主專制國)이 중화민국(中華民國)의 대은인(大恩人)이되는 손문(孫文)의 노력으로 변혁이 되기전까지바로 청나라말년에 서태후(西太后)라는 녀걸이나타나 사천여년군주국의 끝막(終幕)을다쳐스니 대체 그서태후란 엇더한인물인가 한번알어볼일이다.<sup>23)</sup>

위의 내용을 보면 이 한글 번역본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서문이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 서문에서는 중국 하나라의 말희, 은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를 요구한 계집으로 칭하여, 서태후는 중화민국의 대은인 손문과 비견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서태후의 형상은 긍정적으로 제목 '청조녀걸'이랑 대응하다. 이야기는 청나라 말 함풍제, 동치제, 광서제 배후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1835~1908)의 일생에 관한 것이다. <西太后傳>은 淸朝가 民國으로 변모하는 복잡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 과정을 민국을 대표하는 “중화민국의 대 은인이 되는 孫文”<sup>24)</sup>이 아닌 서태후를 통해 그려낸다. 다시 말해 서태후의 행적을 흥건적의 난,<sup>25)</sup> 양무운동,<sup>26)</sup> 무

23) <청조녀걸> 서태후전, 김동진, 덕흥서림, 1936. p3.

24) 앞 책.

25) 중국 中原에서 이민족 왕조인 元の 지배를 타도하고 漢민족 왕조인 明나라 창건의 계기

술변법,<sup>27)</sup> 의화단 운동<sup>28)</sup> 등 역사적 사실과 함께 서술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소설〈西太后演義〉의 서문은 번잡하고 장황하며, 서술의 내용은 '청조녀결'의 인물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한글본은 원작과 한문 현토본보다 오히려 소설에 더 맞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한 변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대화도 조금 더했다.

이 세 작품의 1면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비교해보면, 한문 현토본은 원작의 서문을 거의 다 생략하고 본문이 바로 시작하지만 1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작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한문 현토본은 원작을 바탕으로 삭제와 발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글본의 경우 서문에 내용을 추가했지만 서문 이후 내용은 대체로 원작과 같다. 윗글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西太后演義〉의 수용방식은 번역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한문 현토본에는 한자가 많지만 서술하는 방식과 語順이 한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글본은 서문을 추가했지만 서문 이후 부분을 보면 해당부분의 줄거리를 유지하고 번역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西太后演義〉의 한국 수용방식은 축약번역으로 추정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비교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를 만든 종교적 농민반란.

26) 19세기 후반 중국 청나라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으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 부국강병을 이루려 하였다.

27) 청일전쟁 패배 이후 절충적 개혁인 양무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康有爲, 梁啓超 등이 중심이 되어 정치, 교육, 법 등 청나라 사회전반의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운동. 무술변법이라고도 한다. <https://baike.baidu.com/>.

28) 청조말기인 1900년 중국 華北 일대에서 일어난 배외적 농민투쟁. <https://baike.baidu.com/>.

## 2. <西太后演義>의 수용양상

40회 120페이지의 중국소설 <西太后演義>를 발췌한 <西太后傳>과 그것을 번안한 <(청조녀결)서태후전>은 각각 110페이지, 116페이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생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西太后傳>과 <(청조녀결)서태후전>에 해당하는 <西太后演義>의 회목과 그 대응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西太后演義		西太后傳(한문현토본)	(청조녀결)서태후전(한글본)
서문	1.孝莊皇后와 비교하고, 서태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밝힌다.	×	○29)
제 1회30)	1.태후가 국정을 맡아 보는 것을 예로부터 경계를 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를 밝힌다.	×	1회31)
	2.葉赫 나라씨 일족에 대한 소개.	○	○
	3.아버지의 우인인 오당이 집을 방문해 란아를 매우 칭찬을 하며 그녀에게 많은 보살핌을 준다.	×	×
	4.오당은 일 자리를 옮겨 란아네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란아의 아버지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 돌아간다.	○	○
제2회	1.란아네는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기 위해 귀향을 하여 무심코 오당의 부의금을 받아다.	○	2회32)
	2.오당은 부의금을 잘못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란아네 가족을 다시 만나다.	×	×33)
	3.란아는 희룡을 당하여 화가 나서 병이 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받을 돈이 없다.	×	×
	4.란아는 병중에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 선궁에 들어가자 선녀가 란아에게 나라의 국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제3회	1.란아 꿈속의 환상적인 경지에 빠져 깨어나니 병세가 호전되고 병이 나은 후 성격이 크게 바뀐다.	×	×
	2.함풍제는 황위를 계승되고 황후를 책립하자 란아는 낙담하다.	○	3회 <sup>34)</sup> ×
	3.궁중에서 간택을 하였는데, 란아의 어머니(惠太太)가 거절하지만, 란아는 간택을 수락하여 어머니와 동생들과 작별을 고하다.	○	○
제4회	1.란아는 간택되어 입궁하다.	○	4회 <sup>35)</sup>
	2.란아는 坤寧宮의 궁녀가 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하다. 황후의 여동생과 가까이 지내어 황후의 우대를 받는다.	○	5회 <sup>36)</sup> ×
	3.란아가 혼자 御駕를 영접해서 임금의 눈에 들어 聖寵을 받고 貴人이 된다.	○	6회
제5회	1.란아 귀인은 황제의 총애를 받아 직위에 봉해지고, 황제에게 온갖 아첨을 한다.	○	×
	2.란아 귀인은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하지만 공주를 낳아 란아 귀인은 실망하여 의기소침해진다.	○	○ <sup>37)</sup>
	3.란아 귀인은 궁감에게 뇌물을 주어 몰래 궁중 관계를 조정해 다시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 한다.	○	○
	4.란아 귀인은 황제의 총애를 다시 받고, 임신해서 공주를 낳는다.	○	○
제6회	1.황태후가 승하하며 황제에게 란아 귀인을 우대해 달라고 당부한다.	○	×
	2.란아 귀인은 황자를 출산하여 의비로 승급되고 황제가 연회를 열어 경축한다.	○	7회 <sup>38)</sup>
	3.의비와 임금은 의정하고, 의비가 曾國藩을 추천하여 황제의 칭찬을 받는다.	○	×

	4.의비는 황제에게 자신의 여동생의 혼인을 부탁한다. 황제의 성은을 얻어 귀성한다.	○	8회 <sup>39)</sup>
제7회	1.의비는 귀비로 승급하였고, 그 어머니는 귀비를 맞이하여 집을 보수한다.	○	×
	2.의귀비는 귀성하여 기세가 드높고, 동생 桂祥의 안내로 신택 정원을 참관하여, 본청에 이름을 하사한다.	×	×
	3.귀성이 끝나고 가족과 이별을 아쉬워한다. 귀비는 궁으로 돌아가 사은하여 황제의 내조를 한다.	○	○40)
제8회	1.영국의 粵民방화사건 때문에 葉名琛에게 토벌을 명령하는데, 葉名琛이 그를 무시하고, 영국의 공격을 받는다.	○	9회
	2.함풍제는 내우외환을 겪으며 정사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 원명원의 사춘마마들 에게 빠져든다.	○	×
	3.동남의 군사 상황은 불안정하였으나 황제는 외적이 물러나자 정사를 관여하지 않고 다시 원명원의 四春娘娘에게 빠진다.	○	×
제9회	1.함풍제가 구태여 복 정벌을 하려하니 귀비는 설득하지 못한다. 황제는 奕訢에게 京城에 주둔하도록 명령하고, 전쟁에 승리하자 귀비는 성지를 정한다.	○	×
	2.함풍제는 熱河로 도망가는데, 溫海淀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낙심하여 귀경하지 않는다.	○	○
	3.귀비는 황제에게 回鑾을 권고하였으나, 신하들이 황제를 생각하여 다시 잠시 回鑾은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 이 때문에 귀비는 대신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	×
	4.황제가 병이 위중한 원명원의 四春娘娘를 염려하니, 귀비가 이를 방해한다. 황제는 그 때문에 귀비를 원망한다.	○	×

	5.함풍제가 붕어하여 황후에게 밀의를 주고, 장남을 황태자로 세운다. 귀비는 황태후로 즉위한다.	○41)	○42)
제10회	1.御史 동원순은 두 궁의 태후가 수렴청정할 것을 건의하여, 대신들의 탄핵을 받는다.	○	10회
	2.공왕이 입궁하여 태후에게 문안을 드리려다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안태감은 비밀리에 그를 입궁시켜 태후와 밀담을 하게 한다.	○	×
	3.서태후가 하의로 귀경하였을 때 신하들이 은밀히 서태후를 찢어 죽일 것을 계획한다. 영록은 비밀리에 서태후를 보호하여 서태후는 순조롭게 귀경하게 된다.	○	11회
	4.서태후는 귀경하여 8명의 대신들을 군기처에서 물러나게 하고, 각각의 죄를 물어 처벌하고 殺鷄傲猴하며, 수렴청정 대국을 정한다.	○	○
제11회	1.동서 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서태후는 四春娘娘를 처단한다.	○	○
	2.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고 공적이 있는 신하를 보내어 남은 비적을 수색하고 토벌한다.	○	12회
	3.서태후는 오당을 양광총독으로 앉히려다 공왕의 반대에 부딪친다.	○	×
제12회	1.동치제는 어려서 노는 데 정신이 팔려있고, 태감 안득해는 서태후에게 하루빨리 결혼을 주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	○	13회 <sup>43)</sup>
	2.태감 안득해는 밀지를 받고 궁을 나와 남하하여 동치제의 대혼을 위해 혼수를 마련한다. 그의 기세가 드높다.	○	14회
	3.동치제는 태감 안득해를 원망하고 그의 처형을 명령한다. 서태후는 몸이 좋지 않아서 안득해가 처형당하는지도 모른다.	○	15회

제13회	1.태감 이연영은 안득해를 대신해 서태후의 총애를 받는다.	○	16회
	2.궁의 두 태후는 동치제를 위해 황후를 책봉하여 대혼식을 거행한다.	○44)	17회 <sup>45)</sup>
	3.서태후는 동치제와 황후의 사이를 질투하여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도발한다. 황후와 서태후의 갈등이 깊어진다.	○	×
	4.두 태후가 상의하여 권력을 동치제에게 이양한다. 서태후는 동치제를 위하여 수렴청정을 거둔다.	○	○46)
제14회	1.동치제는 친정한 후 서태후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그녀를 따르지 않는다.	○	○
	2.동치제는 미복으로 행차하고 민간에서 화류를 찾아다닌다.	○	18회
	3.동치제가 화류지의 미색을 탐하고 정사를 소홀히 하여 대신의 탄핵을 받는다.	○	×
제15회	1.서태후는 万壽宴 행사를 거행하여 동치제의 음독을 유도하고 동치제는 천연두를 앓게 된다.	○	○
	2.동치제의 병이 깊어지자 양궁의 태후가 계통 문제를 상의한다. 載滌를 황제로 정하고, 동치제가 승하한다.	○	○
	3.載滌가 왕위를 계승하고, 동서 태후가 다시 수렴청정 한다.	○	○
제16회	1.동치제의 嘉順皇后는 슬픔이 극에 달해 절식한다.	○	19회
	2.동서 태후가 두 번 수렴청정을 하여 새로운 정치를 펼친다.	○	×
	3.영국과 개전하니 청나라 정부의 군비가 빠듯해져서 조정은 출자보다는 사신을 보내 議和하도록 시킨다.	○	×
	4.文宗陵 제사를 할 때 차별 대우를 받은 서태후는 동태후를 원망한다. 태감 이연영은 이 틈을 타서 두 태후의 관계를 갈라놓는다.	○	20회 <sup>47)</sup>

제17회	1. 동태후가 병이 나고, 서태후는 손목의 살을 베어 내어 그녀의 약을 지어주고 병을 치료한다. 동태후가 이에 감동해서 선제의 밀지를 그에게 보여 준다.	○	21회
	2. 동태후는 태감 이연영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질책한다. 서태후는 이에 대해 불평한다. 두 궁 태후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심화된다. 서태후는 병을 치료한 뒤 조정의 정치를 돌보지 않는다.	○	22회
	3. 동태후는 혼자서 조정을 돌보다가 피로가 쌓여 병들어 죽는다.	○	○
	4. 동태후 사후 서태후는 조정의 대권을 독차지한다.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조정을 휘둘러 다.	×	×
	5. 월남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외교 결과가 중국에게 불리해지자 공왕은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	23회 <sup>48)</sup>
제18회	1. 서태후는 慶親王에게 각국의 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조선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	×
	2. 중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청 정부는 패배한다.	○	×
	3. 이홍장은 프랑스에게 화해를 구하지만 실패한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	○	24회
	4. 서태후는 이홍장에게 해군 군대를 세우고 그 군비의 일부를 전용해 淸漪園을 짓도록 명령한다.	○	○
제19회	1. 서태후는 광서제에게 정권을 돌려주려 한다. 광서 13년에 광서황제의 친정 대전이 열린다.	○	○
	2. 이화원이 완공되자 이연영은 서태후를 데리고 이화원을 구경시켜 준다.	○ <sup>49)</sup>	○ <sup>50)</sup>

	3.서태후 동생의 딸은 광서제와 약혼한다.	○	○
제20회	1.광서제의 대혼식이 끝나고 서태후가 광서제에게 귀정한다.	○	○
	2.서태후는 이화원에 머무르고 광서제는 매일 서태후에게 조정을 보고한다.	○	×
	3.祈年殿이 벼락을 맞고 불이 나서 소실된다.	×	×
제21회	1.서태후의 환갑잔치 때 영록이 진기한 보물을 진상하고 복직된다.	○	25회
	2.청일전쟁이 발발한다. 청 정부가 패전하여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다.	×	×
제22회	1.서태후는 광서제가 일본과 전쟁을 시작한 것을 문책한다.	×	×
	2.서태후는 광서제의 빈비에게 화폴이를 하고 珍妃와 瑾妃이인은 처벌을 받는다. 광서제는 비빈이 벌을 받은 것으로 인해 황후를 원망하게 된다.	×	×
제23회	1.광서제는 화해를 구하기 위해 李鴻章을 일본으로 보낸다. 李鴻章은 일본에 가서 화해하는 데 성공하고 쌍방은 의화조약을 체결한다.	○	×
	2.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대관하자 이홍장은 외교 사명을 받고 러시아로 간다.	○	26회
	3.서태후는 광서제를 핍박하여 조약을 맺는다.	○	○
제24회	1.광서제의 생모가 세상을 떠난다.	○	×
	2.광서제는 변법으로 강국하려고 하였으나 서태후는 반대한다.	○	○
	3.康有爲가 변법을 요청하여 광서제는 백일유신을 성사시킨다.	○	27회
제25회	1.광서제는 袁世凱를 불러서 그에게 밀지를 준다. 袁世凱는 밀지를 읽고 밤 사이 경성을 떠난다.	○	28회

	2.원세개는 광서제의 밀지를 영록에게 주고 영록은 몰래 서태후에게 이 사실을 고한다.	○	29회 <sup>51)</sup>
	3.서태후는 광서제를 문책한 후 그를 가택연금 시킨다.	○	×
	4.서태후는 유신과 사람들을 처리하고, 강유위는 이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도망간다.	○	30회
제26회	1.서태후가 광서제를 폐하기 위해, 광서제가 병이 났다고 속여 명의를 모집한다.	○	○
	2.서태후는 광서제의 폐제를 결심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고른다.	○	○
	3.의화단운동 일어난다.	○	31회
제27회	1.의화단 토비가 천진에서 창궐하자 서태후는 대신들을 모아 대책을 상의한다.	○	×
	2.서구 세력들이 들이닥치자, 董福祥은 군대를 거느리고 방어한다.	○	32회
	3.여덟 개국 연합군이 침략하여 大沽포대를 점령한다.	○	○
제28회	1.천진 군민이 외세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한다.	○	×
	2.董福祥은 입궁하여 태후에게 대포를 빌려 서양인들을 상대한다.	○	×
	3.대신들은 서로 상의하여 각국 영사들과 조약을 체결한다.	○	×
제29회	1.천진은 외세에 의해 점령당한다. 北京 역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지자 서태후가 三表五餌의 방법으로 대응한다.	○	33회
	2.李秉衡은 외세와의 대전을 주장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지만 전사하고, 외세가 북경까지 쳐들어온다.	○	34회
	3.서태후는 황제 일행을 데리고 북경을 탈출하고, 珍妃는 보정결을 위해 우물에 투신한다.	○	○ <sup>52)</sup>
제30회	1.서태후 일행은 漢服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	35회

	베이징을 탈출한다.		
	2.피란길에 마땅한 양식이 없으니, 부근의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	○
	3.서태후는 휴전을 위해 和議를 결정한다.	○	×
제31회	1.이홍장은 화의를 위해 12조 화의의 대강을 제정한다.	×	×
	2.서양인들이 전쟁의 책임자를 물어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태후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대신을 사형에 처한다.	○	36회
	3.연합군과 계약을 맺고 서태후는 서안에 주둔한다.	○	○
제32회	1.서태후 일행은 북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행진한다.	○	37회
	2.황태자의 악질적인 품행 때문에 황제 계승자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	○
	3.서태후 일행은 베이징으로 돌아가고 광서제는 외국공사를 접견한다.	×	×
제33회	1.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가 중국 동북 지역의 세 개의 성에서 후퇴한다.	×	×
	2.프랑스 주재 使臣의 딸이 서태후를 만나러 궁에 들어간다.	×	×
	3.德齡郡主은 서태후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	×
제34회	1.서태후는 德齡郡主 모녀 3명을 데리고 이화원에서 연극을 즐기고 궁중에서 유숙하도록 초청한다.	×	×
	2.서태후는 德齡郡主을 통해 서양 문명에 눈을 뜬다.	×	×
제35회	1.서태후는 德齡郡主를 데리고 러시아 使臣의 부인을 만나다.	×	×
	2.영록이 병사하여 서태후의 추봉을 받는다.	○	×

제36회	1.서태후는 万牲園을 참관한다.	×	×
	2.서태후는 海晏堂에서 서양 여자를 접대하고 그녀에게 使臣의 초상화를 그려주도록 한다.	×	×
제37회	1.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다. 청 정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
	2.조선의 주권을 빼앗겼고 러시아는 패배한다.	×	×
제38회	1.서태후는 외교 문제로 만수연석을 준비할 마음이 없어져 추가 휘호를 거부한다.	×	×
	2.서태후는 마지못해 서양의 선진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다섯 명의 사신을 서양으로 보내어 공부하도록 한다.	○	37회 <sup>53)</sup>
제39회	1.黑龍江의 기생을 첩으로 들이려다 조정의 대신에게 탄핵 당한다.	×	×
	2.청정부는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 변법을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을 반포한다.	○	38회
제40회	1.광서제의 병세가 악화되자 서태후가 溥儀를 황위 계승자로 선정한다.	○	39회
	2.광서제가 위독해지자 경왕이 문병오고, 광서제는 유언을 남긴다.	○	○
	3.서태후는 광서제상을 처리하고 과로로 쓰러진다. 깨어나지만 이내 세상을 떠난다. 이튿날 후에 溥儀가 황제로 등극한다.	○	40회 41회

29) <표1>

30) 서문이 있지만, 1회와 연결되어 있다.

31) 서문이 있지만 원작의 서문과 완전 다르다. 서태후라는 녀걸을 주인공으로 끌어낸다.

32) 간략히 소개함.

33) 오당과의 이별과 부친의 서거는 생략한다.

34) 간단히 요약한다.

35) 란아가 간택 우등으로 당성하고 쌍관주하고 황후의 후보를 되는 얘기가 처음 나온다.

<표2>

위 <표2>를 통해 <西太后傳>과 <(청조녀결)서태후전>이 모두 <西太后演義>를 발췌 번역하였지만 모든 내용을 다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작에 들어간 허구의 내용들은 삭제됐고, '청나라 녀결'이라는 서태후의 이미지에 불리한 내용도 상당수 삭제됐다. 예를 들어서 <西太后演義>의 2회에서 3번 및 4번의 허구적인 내용은 한문 원본과 한글본에서 모두 생략됐다. 그 내용은 란아가 꿈을 꾸서 仙宮에 들어갔고 선녀를 만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녀는 란아에게 그가 장래의 국모라고 하였다. 이는 원작 <西太后演義>에서는 연의소설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허구를

- 36) 坤寧宮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황후의 여동생과 가까이 지내는 내용이 없다.
- 37) 란아 귀인이 공주를 낳은 것에 대해 느낀 감정을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 38) 나라귀인은 황자 재순을 낳고 懿妃로 승급한다.
- 39) 의귀비 귀성의 구체적 내용 없음.
- 40) 의귀비가 황제內政의 훌륭한 책사가 된다.
- 41) 황제가 동태후에게 밀지를 맡긴 것은 생략함.
- 42) 함풍제는 여덟명 대신에게 탁고하고 황장자재순 황태자로 책봉한 뒤 붕어함. 동태후에게 밀지를 맡긴 것은 생략함.
- 43) 서태후는 연극에 빠지고, 동치제는 놀음에 빠진다.
- 44) 동치제 대혼 후 친정(과정생략). 종일 상약 생략.
- 45) 동치제 대혼 후 친정(과정생략).
- 46) 친정 대전과정 생략.
- 47) 서태후와 태감 이연영의 대화를 추가함.
- 48) 공왕이 파직당하는 내용은 없다.
- 49) 간단히 요약한다.
- 50) 간단히 요약한다.
- 51) 둘의 대화를 추가함.
- 52) 珍妃의 내용 없음.
- 53) 다섯 명의 使臣을 서양으로 보내어 공부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판본은 傳記라는 장르적 성격과 맞지 않은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이 외에 생략된 것은 대부분 반복주장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서 원작의 제21회에서 청일전쟁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다. 또 제33회에서 청나라와 러시아, 프랑스의 정치문제를 다 생략한다. 이런 나라간 정치적 갈등은 당시 한국 독자들의 이해에도 좋지 않고 재미도 없어서 그냥 생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원작 <西太后演義>에 있는 거의 모든 성지와 관문서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이것들은 대부분 내용이 복잡하고 따분하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기만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작의 제18회중에서 조선 동학 농민 운동의 얘기가 나오지만 한글본과 한문 현토본은 이 부분 역시 모두 삭제했다. 원작에 적힌 조선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생략됐다. 구체적으로, 원작 제37회의 2중에서 조선의 주권문제에 관한 부분과 제33, 34, 36, 37회가 전부 삭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두 德齡郡主와 관련된 내용이다. 54) 이 사람이 주인공과도 연관이 있지만 서태후라는 인물의 이미지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굳이 많은 분량으로 서술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작품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한글본은 한문 현토본을 기초하여 번역과 수정을 거쳐 각색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한문 현토본과 한글본의 생략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데, 한글본은 한문 현토본의 생략에 다시 한 번 생략과 변이를 더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문 현토본은 원작처럼 회목을 나누지 않고 내용 자체를 총체적으로 풀어낸다.

54) 청나라 귀족. 만주 정백기(正白旗) 사람으로 군주(郡主)에 책봉되었고, 덕령공주(德齡公主) 혹은 덕령군주(德齡郡主)라고도 한다. 일찌기 자희태후(慈禧太后)의 여관(女官)으로써 영어를 옮겨 쓰거나 자희태후가 이름을 들은 사람의 경력을 적는 등의 일을 하였다. <https://baike.baidu.com/>.

한글본은 회목이 있지만 원작의 회목과 완전히 같게 나누지는 않고 요약과 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한글본은 원작과 달리 모두 42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한글본에서는 서태후를 청나라 말년의 여걸로 표현하고 그녀를 혁명의 위인인 孫中山에 비견되는 여걸이라 칭한다. 이 작품이 서태후라는 캐릭터를 기존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반전시켰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한글본에서 여걸이라는 인물의 이미지에 맞춰 약간의 절제와 변이를 더했다. 앞의 내용을 보면 한문 현토본은 원작을 기초해서 번역·발췌한 것이고, 한글본은 그러한 한문 현토본을 기초해서 축약과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난아 입궁 간택 당선에 관한 서술 살펴보기로 하자.<sup>55)</sup>

(가) 이 한마디가 함풍제의 귀에 전해져, 비로소 "慈의 감정은 틀림없습니다"라고 돌이켜 말했다. 그리하여 붉은뺨을 잡고 그 명단에서 두 바퀴를 돌렸다, 궁감은 그녀를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sup>56)</sup>

(나) 咸豐帝回視道 慈鑑이定然不錯이로소이다 ㅎ며硃筆로名單上에圈了兩圈 ㅎ고宮監외게 下論 ㅎ야令他引去러니未.....<sup>57)</sup>

(다) 황태후압흐로 고개를돌니며 과연그러하오이다 하고 붓을드

55) 김동진, <청조녀걸> 서태후전, 덕흥서림, 1936. p13.

56)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23~24쪽."這壹句話, 傳到咸豐帝耳中, 方回視道: "慈鑒定然不錯!" 遂握著朱筆, 把名單上圈了兩圈, 遂諭貼身宮監, 令他引去.

57) 이규용, <西太后傳>, 광문사, 1922. p8.

러 간택자 名簿錄에 붉은동그람이두줄을 그으니이가튼 雙貫珠를  
맞는일흠이곳 란아였다 란아의뒤에도 혹은 批點이며 관주를 朱  
墨으로 맞는일흠 이잇섯스 나쌍관주를 마진일흠은 란아뿐이였  
다.<sup>58)</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내)와 (개)의 내용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내)의 묘사에서 雙貫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원작 <西太后演義>중에서 '圈了兩圈' 다고 기술했는데, (내)에서는 雙貫珠라는 단어가 대체한다. 같은 뜻이지만 (내)는 언어 선택에 약간의 포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雙貫珠'과 관련한 부가적 설명이 추가됐다 "맞는일흠이잇섯스나쌍관주를 마진일흠은 란아뿐이였다", 이것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특출난 난아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문의 성총을 독차지하는 것은 이에 호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응은 그 다음에도 있다: "간택에 우등으로 당선이 된 란아는 坤寧宮의 궁녀가 되었다 곧녕궁은 황후의 궁이 되어 황후의 候補로 당선된 궁녀라야 이 궁에 있게 된다."<sup>59)</sup> 여기서의 추가 서술은 아마 그 당시에 중국 궁예절을 잘 모르는 독자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역시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난아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태후의 긍정적 인물형상에 호응하기 위해 서태후의 부정적인 묘사도 교묘히 변경했다.

(개) 이때에 함풍제가 아직 후사가 없었는데, 이 말에 들어 이르  
고는, 기뻐함이 무엇과 서로 비슷했겠는가. 나랍귀인을 향하여

58) 김동진, <청조녀걸> 서태후전>, 덕흥서림, 1936. p12.

59) 앞 책. p13.

말하기를 “과연 하나의 황자를 낳으면, 짐이 정히 너를 봉하여 왕비로 하리라” 하였다. 나랍귀인이 황망히 땅에 꿇어앉고는 은혜에 감사해함이 매우 정성스럽고 민첩하였다. 함풍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지금 아직 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에 감사해하느냐. 짐은 이러한 모양의 성급한 사람은 본적이 있지않구나!” 하였다. 나랍귀인이 꿇어앉아 상주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희롱하는말이 없어, 오동나무앞에도 나누어 봉하였으니, 이에 이가 옛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였다. 또 이야기하는데, 나랍귀인이 아이를 낳아 황비의 지위에 잘 널리 통하기를 한껏 바래서, 눈이 노려보며 십개월을 지났는데, 아직 일찌기 분만하지 않음이다가, 십개월이 만족됨에 기다려 이르러, 배안에서 처음으로 진동을 느끼자, 궁중에서 일찍감치 출생을 의탁할 산파를 예비하였다가, 귀인이 장자 분만에 임함을 요한다는것을 듣고는, 미리와서 때를 엿보았는데, 머지않아 출산때가 이미 이르러, 나랍귀신의 복통이 자주 베풀어지고, 곧 하나의 아기를 낳자, 급히 산파에게 묻기를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고 반각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회답을 보지못하자, 또 재촉하며 한번 물었는데, 바야흐로 산파가 “공손히 기뻐하옵니다! 한분의 공주십니다” 하는것을 들었다. 나랍귀인이 말을 듣고는, 금치못하며 말하여내기를 “아유” 두글자를 하였다. (문필이 또 꺾이기를 요한다). 마음이 재가되고 뜻이 나태해짐을 당하니, 또 누워 병들어버림이 여러 날이었는데, 바야흐로 점점 마음을 돌려와, 근심스러운 마음이 한번 풀리자 병든몸도 스스로 나았다. 다만 이 여자아기를 훔쳐볼때면, 아직도 그녀에게 원망함을 물어, 때로 비록 시녀가 안고 있음에 말미암아도, 그녀는 또 크게 소리치고 가리키며 물리치

기를 요구하며, 성내는 소리를하여 이 여자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니, 한달에 이르지 않아, 마침내 옥이 떨어지고 향이 사라져(딸이 죽음), 귀신관문으로 돌아가버렸으나(측천무후의 심사를 방불케한다), 나랍귀인은 또 어떠한 상심도 없이, 다만 자기가 운명이 절름발이가 되어 봉함을 가해짐에 따름이 없을것을 근심하였다.<sup>60)</sup>

(나) 咸豐帝一尙無冢嗣라聞到此言호고貴人을向호야道호되皇子를果生호면 朕이你로妃一를封호리라貴人이跪地謝恩이러라十月이滿足호야産期가已届에 一個嬰兒을産下호고穩婆의게是男是女를急問호니穩婆一道호되 恭喜一位公主라호얀'르貴人이心灰意懶호야病臥幾日이러가愁腸을 回轉호'ㅣ病體가自痊이라這個女嬰을瞧着호면大聲指斥 호야嚇的 女嬰이啼哭 호기를不已러니不到一月에玉殞香消호얏스나那拉貴人은 傷心호'口이沒有 호고但히自己의命蹇호'口을歎호'더라.<sup>61)</sup>

(다)란아가 귀인의몸으로 다른빈보다 비보다 후궁의 총애를 독차지하게된 것은 함풍제가아즉 새안하는 경사를 보지못한터에 맛

60) 蔡東藩, <西太后演義>, 中國書局出版社. p46~49."這時候鹹豐帝尙無冢嗣, 聞到這語, 喜得什麼相似, 向那拉貴人道: “如果生壹皇子, 朕定封妳為妃。”那拉貴人忙跪地謝恩。煞是靈警。鹹豐帝笑道: “現尙未封, 如何謝恩。朕沒有見過這樣性急的人!”那拉貴人跪奏道: “天子無戲言, 桐葉分封, 乃是古時的佳話。……且說那拉貴人滿望産兒, 好博个皇妃位置。眼睁睁的過了十月, 尙是不曾分娩。待到十月滿足腹中始覺震動。宮中早預備托生的穩婆, 聞貴人將要臨盆, 預來伺候。不多時産期已屆, 那拉貴人腹痛几陣, 便産下一个嬰兒。急問穩婆: 是男? 是女? 待了半晌, 未見回答, 又催問了一声。方听了穩婆道: “恭喜! 一位公主。”那拉貴人听说, 不禁說出“阿哟”兩字。文笔又要頓挫。当下心灰意懶, 又卧病了好几日, 方渐渐回轉心來。愁腸一釋, 病體自痊。只瞧着这个女嬰, 尚是把她埋怨。有时虽由侍女抱着, 她还要大声指斥, 吓得这女嬰啼哭不已。不到一月, 竟尔玉殞香消, 回到鬼门关去了。仿佛是武后心思。那拉貴人也沒什么伤心, 但愁着自己命蹇, 无从加封。”

61) 이규용, <西太后傳>, 광문사, 1922. p21-22.

으로 공주를 탄생하게된것이다 공주를나온것이 황자를나온것만  
은 못하지마는 황후 이하로 다른비빈들까지 생산을못하고있는터  
에 딸이라도먼저나온 것이 황실에경사이 었고 딸을나오면 장차  
아들도 나올것이라는 황실의희망을자괴몸으로 모으게된것이다  
그러나 조혼일에는 마가든다고 공주가 나온지한달만에 죽는다  
그야말로 함풍제에게는 아주 둘도없는 일점혈육 一點血肉이 보  
이자 바로업서진것이 황실에섬섬한일이지마는 판아귀인은 이일  
로해서 근심하지 안코 다만 자괴의운명이 불길하다는것을 한탄  
할뿐이다.<sup>6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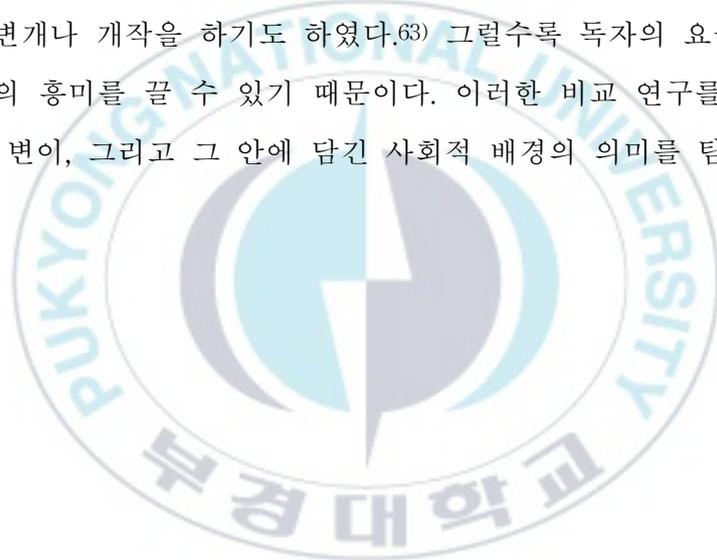
한글본에서의 난아의 첫 출산 내용은 나머지 것들과 다소 상이하다. (가)  
(나)에서는 황제가 난아에게 황자를 낳으면 승급할 수 있다고 했다. 난아가  
공주를 낳아 실망했다는 것과 공주의 죽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男尊女卑의 구현이다. 하지만 (다)에서는 이런  
내용을 완화하여 '딸이라도 먼저 낳은 것이 황실에 경사였고'로 변경하였  
다. 이는 여성 독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변경된 것임을 볼 수 있다. 또 이  
책이 출간된 때는 20세기 초로 男尊女卑와 같은 봉건사상이 시대상황과 어  
울리지 않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청나라 시대는 봉건사상  
이 성행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글본에서 서태후를 여걸의 이미지  
로 만들고 그런데다가 이것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자 여성을 돋보  
이고자 한 작품이기에 男尊女卑 사상은 더더욱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작품이 출간된 시대적 배경과 작품 창작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세 작품은 대체로 같지만 또 각기 다르다. 한문 현토본은 원작과 전

---

62) 김동진, <청조녀걸> 서태후전>, 덕흥서림, 1936. p20-21.

반적으로 동일하지만 내용의 일부를 생략했다. 생략된 것은 대개 반복된 상주문과 유지 내용이었다. 그리고 허구적인 부분과 길고 장황하게 화려한 정원을 묘사한 부분 역시 생략하였다. 이것은 출판업자들이 원가 절약을 목적으로 책의 페이지 수를 조절하기 위해 행하는 삭감일 수도 있다. 활자본 고전소설은 경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출판 자본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활자본 고전소설의 상업적인 속성도 빼놓을 수 없다. 활자본 고전소설은 상품으로서 판매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독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전래의 고전소설을 그대로 옮기기도 하면서 때로는 적극적인 변개나 개작을 하기도 하였다.<sup>63)</sup> 그럴수록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작품의 생략과 변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배경의 의미를 탐구해 볼 수 있다.



---

63)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보고서, 2017. p19.

#### IV. 수용의 소설사적 의의

20세기 초 개화기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혼재했던 때로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 문학 양식과 새로운 문학 양식이 동시에 존재한 시기이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활자본이 등장하면서 고전소설의 독자층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 독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대중소설의 독자는 주로 여성층이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명부전>과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출현하였는데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였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효녀, 열녀, 신녀, 양처 등) 외에 女傑, 女政治家, 女詩人, 女畫家 등이 등장하며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sup>64)</sup> <西太后演義>가 다른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대중소설들과 조금 다른 점은, 서태후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녀는 중국의 봉건사회를 47년간 통치한 女傑, 女政治家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태후와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여자는 당시 男尊女卑 인식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이미지다. 여성 독자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녀들은 소설 속 여성인물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능과 무의식적 욕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성 인물의 일생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공감하기도 한다. 원작에서는 서태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글본에서는 '청조녀걸'이라는 칭호를 추가한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서태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물론 <西太后傳>은 번역 작품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64)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 영웅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2, p43.

할 수 있지만 작품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미 조선인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작은 연의의 형식을 띄는 작품이지만 그것은 충분히 사서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태후의 일대기를 연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작품의 이름을 傳으로 바꾼 것도 나무랄 데가 없다. 게다가 전기는 연의보다 더 진실성이 있어서 이런 女傑의 인물 전기소설의 등장은 당시 개화기에 사회적 신분 상승을 갈망했던 여성 독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진실성은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열망을 가진 여성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작용이 있었다. 작품의 수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 수용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변용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서태후가 중국의 역사인물이지만 한국식 서사 기법을 통해 새로이 가공을 함으로써 한국의 특색을 띠게 됨과 동시에 한국의 풍토와 문학적 색채 또한 담겨져 새로운 여성인물로서 탄생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닌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작품의 주인공인 서태후는 왕실의 여자였기 때문에 왕실여성에 대한 조선시대 독자들의 관심이 제고될 수도 있었다. 김동인은 <춘원연구>에서 ‘궁중사건은 민간에는 휘지필지하여 오든이 왕조라 말하는 자에게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인정으로, 이 백성들은 궁중록이라면 머리를 싸매고 달려든다’<sup>65)</sup>고 했다. 이것을 통해 宮中密史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왕이 교체되더라도 李氏왕조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연히 조선의 궁중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왕실 여자를 소개하는 소설이 조선 민중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다.

---

65)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대중서관, 1983, p151.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작품이 조선 민중들의 왕실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독자들의 적적함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중국 왕실의 여자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빗대어 볼 수 있었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어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성의 이야기를 중국 배경을 통해 서사화한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은 중국 왕실의 여성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지만 실상은 조선의 왕실 여자를 은유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 왕실 여자에 집중하는 것은 민중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독자의 흥미와 상업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책이면서도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자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출구 역할을 함께 담당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창작된 구활자본의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개화기 역사소설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개화기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혼재로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 문학양식과 새로운 문학 양식이 동시에 존재한 시기이다. 따라서 구활자본소설의 출판 상업성까지 고려할 때 고소설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역사성과 민족주의를 같이 표현하는 소설유형인 ‘傳記的 형식’은 역사소설의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이순신실기>,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등 한국 역사상에 실존했던 위인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적’ 역사소설도 대량 출판되었다. 본고에서 살핀 중국 역사 속 여성 인물을 다룬 작품은 소설의 교양성, 흥미성, 역사 전달력 등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였으며 조선소설의 다양한 유형적 발달사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烈女를 비롯하여 惡女, 才女, 女性英雄 등과 같은 다양한 여성상이 ‘조선화’된 과정을 통해 한국고전소설사의 맥락과 다양한 작품 창작기법을 조망하고, 조선시

대 여성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20세기 대중소설에서 중국 여성 인물이 수용한 활자본 고전 소설〈西太后演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세기 초에 활자본 대중소설이 크게 확산되면서 소설이 번역, 번안 등의 다양한 수용방식으로 조선에 들어와 다시 출판된다. 〈西太后演義〉는 20세기에 축약번역의 방식으로 한국에 수용된다. 이 작품은 연의 장르지만 史書적 가치가 있다.

우선 중국원작과 한문 원토본을 비교하면서 원작과 다른 점을 분석하여 그 수용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한문 원토본의 내용은 대체로 원작과 동일하였고 내용이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어의 語順으로 쓰여 있었다. 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다음 한문 원토본과 한글본을 비교해 보았다. 이 둘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한글본은 한문 원토본을 번역한 작품이었는데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약 또는 각색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글본에서 "청조녀걸"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이와 같은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번안을 추가하였다. 원작〈西太后演義〉에서는 이런 이미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거의 다 삭제되었다. 여성 독자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시대 배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글본에서 서태후라는 女傑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 독자들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번역의 방식으로 수용하면서도 인물을 미리 구상한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런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당시 사회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여성 독자의 정신적 뒷받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서태후와 같이 특별한 왕실 여자의 傳記소재는 그 당시 대중소설 레퍼토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작품 수용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대 문명 도입과 봉건사회의 해체라는 한국의 정치적인 변화는 조선 시대가 멸망하고 일제가 한국에 식민지 지배체제를 자리 잡은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다보니 이 시기에 출판된 작품들은 수용과정에서 있어 중국의 전통적인 특색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소설의 수용은 한국 문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고 이는 또한 한국 근대 문학의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한국의 시대적 문화와 결합된 작품은, 중국 문학의 해외 전파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한국문학 및 사회배경 연구에 있어서도 높은 연구 가치를 갖는다.

본고는 고전소설 <西太后演義>을 분석하면서, 원전과 다른 점에 착목하여 그 변용 양상과 의미를 천착하였다. 이는 원전을 가진 작품 분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는 없어 더 깊이 파고드는 연구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문이 향후 중국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고전소설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清史通俗演義>, 蔡東藩, 上海會文堂出版社, 1916.
- <西太后演義>, 蔡東藩, 中國書局出版社. 2014.
- <西太后傳>, 이규용, 광문사, 1922.
- <(청조녀걸) 서태후전>, 김동진, 덕흥서림, 1936.
- <慈禧傳信錄>, 費行簡, 崇文書局出版社, 1918,
- 『清史解讀(上冊)』, 白玉林·曾志華·張新科主編. 華齡出版社, 2007年  
01月第1版: 160.
- 『王鐘翰說清朝』王鐘翰,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9.1: 133.
- 張坤, 「중국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17.8.
- 홍현성, 「<문장풍류삼대록>에 나타난 여성 인식과 의미」, 장서각21,  
2009.
- 임치균, 「18세기 고전 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8, 2002.
-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보고사, 2017.
-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 영웅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2.
-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대중서관, 1983.